내 나이 일곱살,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금발에 시선을 뺏겼다.

내 나이 열살, 처음으로 검을 쥔 후 상기된 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순수한 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내 나이 열 세살,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인 주제에 어른 흉내를 내며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당신이 사랑스러웠다.

내 나이 열 아홉살, 첫 사교계 데뷔에 떠는 나를 위해 내 손에 입맞춰주던 다정함이 좋았다.

당신은 내 곁에 십삼년간 머물렀고 나는 나조차 모르는 사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녀님, 제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이름으로 부를것을 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퍽이나 매정한 이여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은건 십삼년동안 채 열번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랬건만....

마지막까지 그는 잔인한 이였다. 허나 그녀는 그의 고집스러운 면마저도 사랑했기에

모든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이벤나힘의 하나뿐인 후계자였다.

미모와 지성, 부와 명성. 그리고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는 마법사의 자질까지 모두 갖춘 그녀는 대륙에서 내로라하는 신붓감 후보였다.

부족함 하나 없는 그녀가 유일하게 바라던것은 작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의 호위기사, 리오넬.

그녀는 그를 십삼년동안 사랑했으나 으레 마음이란것이 한쪽의 노력만으론 성립되지 않듯이 그는 결국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단지 다른 여자가 황태자의 여자였을 뿐이었다.

자신의 것을 뺏겨 분노한 황태자는 그와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반역자로 낙인찍고 수배령을 내렸다.

그리고 조사단을 꾸려 대륙에서 가장 명석하고 뛰어나다는 공녀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그녀가 그들을 찾아내는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을때, 남자는 도망갈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분노에 삼켜진 황태자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알면서도 그녀의 자비를 구걸했다.

그녀가 봤던 그는 한번도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애원하지 않았다.

항상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는듯, 묵묵히 모든것을 감내했던 이다.

고아라고 무시하며 검술원의 선생들이 그를 짐승이 나오는 산에 혼자 보냈을때도,

그녀의 아비가 살인을 명했을때도,

그녀가 권력을 앞세워 그에게 그녀의 침대를 데울것을 명했을때도 그는 하나의 반발없이 모든것을 수행해냈다.

그랬던 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다른 여자를 위해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아가씨, 제 일생동안 단 한번의 소원입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못본척해주세요."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십삼년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을 지켰다.

그저 존재하는게 이유인듯마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채 오랜 세월을 그녀와 함께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그의 애원을 무시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면서도 그를 보내줄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그녀는 그만큼 그를 사랑했으므로.

"...가세요.

그리고.... 그리고...우리 이제 다신 보지 말아요."

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그의 연인을 챙겨 뒤돌아 뛰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눈물로 흐려졌지만 그녀는 끝내 그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추격대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그들을 발견했던 즉시 불꽃을 일으켜 쏘았으니

황태자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는것이리라.

그녀는 뒤를 돌아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군대를 향해 미소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시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번개가 일었다.

레온하르트 5년, 대지를 뒤흔드는 큰 벼락이 있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 왕국을 수천년부터 수호해왔다는 신목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반역자를 쫓던 황태자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바싹 마른 시체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 레온하르트 왕국사 발췌

다시 볼 일이 없을거라 여긴 그는

혹한의 계절, 에일듯한 추위와 함께 돌아왔다.

비의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은 그녀를 시린 눈으로 응시하면서.

페이라 이벤나힘.

그녀는 이벤나힘의 후계자로써 모든것을 가진 이였지만

가장 원하는것은 갖지 못했다.

하지만 때론, 사람이 원하는것은 바뀌기 마련인것이다.

불타는 시체들과 잿더미가 가득한 폐허속에서

그녀는 처연히 앉아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갔고

황명을 어긴것도 모자라 황태자 군대의 반을 몰살했다.

그녀의 가문, 가족들과 식솔들, 모두 무사하지 못하리라.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되는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그녀에겐 모든것이 덧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한가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

분노한 황태자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잡으려고 할건 자명했다.

그런 그를 막는것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임무였다.

한번도 어느것 하나 욕심내지 못한 이의 행복을 위해서.

어차피 반역의 죄 앞에 스러질 몸,

그가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질수 있게 황태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얼마를 앉아 있었을까.

말이 투레질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 앞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올려다본 시선 끝에는 환한 백금발의 미남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페이라 이벤나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녀는 손에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단 일격으로 심장을 꿰뚫어 죽이는거야.

그를 위해 저 사람을 동정하지마.

그런데 그 순간, 있을수 없는 말이 들렸다.

"나의 비가 되어라."

페이라는 진실로, 그순간 황태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터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도망을 도운걸로도 모잘라 그의 정예부대 반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를 죽일 생각을 했던 저다.

물론 그녀가 그를 죽이려고 한건 모르겠지만 상황상 반역의 죄는 너무나 극명했기에

그녀는 충격을 금할수가 없었다.

잘못들은건 아닐까.

멍한 표정으로 황태자를 바라보자 그는 싱긋 웃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말야, 내 말을 들어보면 그대의 생각이 달라질거야.

나는-"

"....라...이라"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며 페이라는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백금발이 시야에 가득 찼고, 그다음엔 수려한 얼굴이 보였다.

황제는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온하르트."

"이제 일어나야지, 나의 아름다운 비여."

상냥하게 미소지은 그는 잠이 덜깨 눈을 비비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키스한후

그녀의 허리 뒤로 손을 넣어 일으켜주었다.

"오늘은 건국제를 축하하러 로엔국에서 사절단이 오기로 한 날이니 일정이 매우 바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거야."

그리 말한 그가 침대 옆의 줄을 잡아당기자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대여섯명의 시녀들이 발빠르게 당도했다.

"그럼 준비 잘 하고, 이따 보도록 하지.

너희들은 비를 잘 모시거라."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시녀들을 지나쳐 그는 방을 나갔고

페이라는 계속 밀려오는 잠을 떨치며 욕실로 향했다.

페이라가 레온하르트의 비가 된지 7년,

여느때와 같은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레온하르트의 비로 산지 어느덧 칠년,

페이라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대리석 욕조에 가득찬 따듯한 물에 몸을 담그며 시녀들의 온갖 시중을 받고 있자니

새삼스럽게 현 상황이 어쩐지 꿈만 같이 멀게 느껴졌다.

머리를 감아주는 시녀의 손에 눈을 감으며 그녀는 지나간 나날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진실로, 칠년전 그날 모든것을 버릴 각오를 했었다.

공녀의 위치도, 가문도, 모든 부와 명성도 가장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냈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다 허망할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것을 가진 이였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그녀가 가장 원하던것, 리오넬의 사랑은 갖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태인 사랑이 너무나 덧없는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페이라가 그와 함께 보낸 세월동안, 그를 마음에 둔 세월동안 리오넬은 언제나

그녀가 가장 원하는이였고 그녀의 빛이였으며 그녀의 세상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가지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녀가 가진것으론 그의 마음을 얻을수 없었고 그는 사랑하는자와 함께 떠나갔다.

그녀와 함께 한 십삼년의 세월을 등에 진채로.

그녀와 그의 시작은 순수함이었지만 끝은 배신과 상처 뿐이었다.

그리고 둘의 사이를 그렇게 만든것은 그녀의 상황과, 그녀 스스로의 이기심이라는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물론 그녀는 그것을 해결하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항상 결과는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법,

그가 그녀를 져버리고 도망갔던날 페이라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진실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그녀의 한갖 집착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 7년간의 세월동안 그녀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알게되었다.

레온하르트.

그녀의 남편이자 현 제국의 황제인 그는 전대 황제의 두번째 아들이었으며,

그의 형이 8년동안 지켜온 황태자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찬탈한 자였다.

전 황태자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람에게는 다정했고

온유한 자였다.

레온하르트는 그런 형 뒤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갑자기 왕위에 욕심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8년전 갑자기 황태자의 자리를 욕심내며 본인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할것을 요청했다.

전대 황제는 냉철한 사람으로 항상 더 뛰어난 자, 능력있는 자를 욕심냈으며 그것은 자신의 친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황제는 1년이란 시간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너의 능력을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하며 레온하르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레온하르트는 즉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능력있는 기사들을 추려모아 직속 기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즉시 제국의 골칫거리였던 이웃나라 하나를 토벌하겠노라 떠났는데, 그 나라의 국왕의 목을 베고 완승을 하여 돌아왔다.

그가 전쟁터로 떠난지 단 삼개월만의 일이었다.

황제는 10년동안 이어져왔던 문제를 삼개월만에 해결한 그의 아들의 능력에 반색해

바로 황태자를 레온하르트로 바꾸어버렸다.

그 문제로 페이라의 아버지, 이벤나힘 공작을 비롯해 많은 대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황제는 단호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진했다.

황제가 레온하르트를 황태자로 택한 후 레온하르트는 다시 한번 토벌했던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 막대한 조공을 약속받았고 제국은 더욱더 부강해졌다.

그런 그를 치하하기 위해 황제는 레온하르트에게 원하는것을 물었는데 원하는것이 없다 말하던 레온하르트는 그와 둘이 되었을때 불안의 요소는 남겨두고 싶지 않다며 전 황태자의 목숨을 원했다.

비록 능력있는자를 욕심내는 황제였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애정은 있었던 그는

그 요청은 받아들일수 없노라 말했고 그런 황제의 말에 레온하르트는 알겠다며 물러났지만 그의 입가에 띈 오묘한 미소는 아무도 볼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지 반년 후, 전 황태자는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요절했다.

전대 황제는 전 황태자의 죽음이 레온하르트가 꾸민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파헤치기엔 증거가 없었으며 레온하르트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후였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다 궁에 틀어박히곤 모든 정무를 레온하르트에게 넘겨주었다.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좀먹었지만 그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레온하르트는 그 후, 황태자로써 모든 권력을 휘둘렀고 어느것 하나 빠짐없이 다 가진듯 보였다.

그가 귀애하던 평민의 여자가 페이라의 기사와 도망갈때까지.

레온하르트가 매우 아꼈던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날 시찰을 나갔다 온 그의 말에 그녀가 올라앉아있었으며 레온하르트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매우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여자는 흔하디 흔한 갈색 머리를 갖고 있었으나 그녀의 미색이 그걸로 인해 바래지 않았으며,

청초한 그녀의 외모는 모든 남자들이 흠모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녀가 첫 황궁에 입성하던날 황궁은 그녀의 미색과 출신으로 인해 한바탕 떠들썩했지만 레온하르트는 그런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그가 원하는 바를 착착 진행시켰다.

첫번째로, 그는 그녀에게 황궁에서 가장 좋은 방을 배정해주었으며, 백작가 이상이 되는 실력있는 선생들만 엄선해 그녀를 교육시켰다,

그리고 대귀족 회의에서 그녀를 바로 황후로 맞이할것이라 선포하였다.

제국의 5대 공작가는 기함했고 많은 백작들의 반발이 있었다.

황태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지만 너무나 큰 반발에 의해 일년동안 황후 책봉식을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녀는 페이라의 기사와 도망가버렸다.

리오넬과 그녀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둘은 사랑에 빠졌고, 황태자와 자신의 주군을 저버린채 도피행을 감행했다는 거였다.

페이라는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것도 있었지만 그녀 가신의 일로 책임을 질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황태자가 꾸린 조사단의 단장이 되어 그들을 쫓았지만 황태자가 하나 간과한게 있다면

페이라가 리오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페이라는 그를 죽일수 없었고 반역을 일으켰다.

그렇게 모든것을 포기한 페이라에게 황태자는 믿을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비가 되라는것.

황태자는 사실, 사랑에 미친 자처럼 보였으나 뛰어난 능력과 함께 현실 판단 능력이 매우 탁월한 자였다.

페이라가 그의 군대 반을 몰살시킴과 동시에 그는 페이라의 능력을 깨달았으며,

계속 눈엣가시였던 이벤나힘의 권력을 손에 넣을 기회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그래서 페이라와의 결혼을 원했다.

사실 이벤나힘 공작가의 권력은 너무 커서 황가와의 결혼은 불가능했다.

100년전 왕국이 제국으로 부상할 때, 많은 주변나라를 토벌하는데 도움을 준 이벤나힘 가문은

백작가에서 공작가로 승급하였고 그와 동시에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너무도 커서 다른 네 공작가를 합한것과도 같았으며 황권마저 위협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황제는 아예 국법으로 이벤나힘 공작가를 황가의 결혼 상대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혹여 이벤나힘의 여식이 황가에 들어와 자식을 낳으면 황가가 삼켜질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100년동안 이벤나힘의 가문에서는 황가와 사돈을 맺는 경우는 없었고

이것은 으레 관습처럼 절대 해서는 안되는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황가와 연이 얽히진 않았지만 이벤나힘 가문은 100년동안 더 번성하면 번성했지

몰락하거나 쇠퇴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점점 세력이 커지는 찰나, 페이라가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

레온하르트가 기회를 쥐게 된 것이었다.

레온하르트는 리오넬이 도망간걸 눈감아 주는것과 동시에 페이라의 목숨을 댓가로

이벤나힘의 힘을 원했다.

레온하르트는 꽤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화법을 잘 구사했기에

약해진 페이라의 내면을 꾀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대와 그대 아비의 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노라며,

리오넬을 놓친것은 그대 아비의 탓이 크다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아비의 욕심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는데 복수하고 싶지 않냐며,

자신의 손을 잡으면 그녀의 아비가 맹목적으로 쫓았던 권력이란 꿈을 산산히 부셔주겠노라 속살거렸다.

물론, 페이라의 능력은 뛰어났기에 그녀가 이벤나힘 공작을 처리하는것은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 이벤나힘의 부흥과 권력을 위해 모든것을 쏟아왔던 그가

모든 권력이 황가에 넘어갔을때 그 절망어린 표정을 상상해보라며 그가 나지막히 말하자

페이라는 그의 손을 잡을수밖에 없었다.

훗날 페이라는 그의 속삭임을 독사와도 같다고 생각했으나

아마 다시 돌아가더라도 몇번이나 그의 손을 잡았을거라 회상했다.

그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페이라는 이벤나힘 공작과의 티타임에서 무향무취의 독을 넣어 공작이 쓰러진 틈을 타 공작가를 이어받았다.

공작으로써의 즉위가 끝남과 동시에 페이라는 레온하르트와 급히 결혼식을 올린후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황가에 넘기겠다는 서약을 했고 그렇게 이벤나힘 공작가는 황가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녀의 아비는 결혼식 다음날 눈을 떴지만 이미 모든것은 끝나있었고 독의 후유증으로 인해 의식은 있었으나 전신을 움직일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페이라는 아버지를 간호한단 명목하에 단 둘이 되어 모든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았으며

그 얘기를 들은 그녀의 아비의 눈에서 눈물 한방울이 떨어져내렸지만 페이라의 차가운 얼굴에는 동정 하나 스치지 않았다.

레온하르트의 비가 된 후 7년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황제가 서거하여 레온하르트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그와 그녀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제국은 한층 더 부강해졌다.

사실 페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레온하르트가 그녀를 암살하거나 처형시킬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너무나 다정한 남편이었고 별 탈 없이 칠년을 그와 함께 했다.

비록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레온하르트는 항상 그녀를 우선시 했으며

후궁조차 두지 않았다.

제국의 황후란 지고한 위치와 손 한번만 까딱해도 품에 들어오는 진귀한 보석과 드레스들, 자신을 우러러보는 많은 귀족 영애들. 페이라는 공작 영애로 살았던 때보다 더 많은것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모든것은 그녀를 귀애하는 황제로 인해 얻게된 결과였다.

그러나 페이라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도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다.

불면 날아갈까 금이야 옥이야 그녀를 귀애하는 황제에게 그녀는 지난 칠년동안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된 페이라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칠년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녀의 삶은 평화로울 것이리라,

페이라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듯,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황제폐하, 황후폐하 입장하십니다."

시종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며 페이라는 레온하르트의 손을 잡고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그녀의 귀에 홀의 가운데로 걸어나갈수록 많은 남자들의 한숨이 들렸다.

아마 그녀의 외모에 모두 감탄하는 것이리라.

선망어린 시선과 흠모하는 시선이 한데 모아짐을 느끼면서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계속 걸었다.

살짝 옆을 올려다보니 그녀가 사랑하는 이는 한껏 치장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멋져보였다.

황제는 약간 인상이 딱딱해지나 싶더니 페이라의 손을 더 꽉 잡곤 조용히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대를 보는 눈들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건 알지만, 나만 보고 싶군."

그의 말에 페이라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것 같았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와 함께 왕좌에 착석했다.

시종이 그들에게 술잔을 가져왔고 잔을 집어든 황제는 이윽고 건국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대들의 모든 노고에 감사하네. 레온하르트의 번성을 위해-"

홀안의 귀족들이 그의 말에 화답하듯이 모두 술잔을 높이 올려 레온하르트의 번성을 빌었다.

그렇게 건국제는 시작되었고 약간의 담소가 있은 후에

로엔에서의 사절단이 입장하는 순간이 되었다.

"로엔 왕국에서의 사절단, 입장하십니다!"

시종의 호명과 동시에 문이 열렸고

공물을 한가득 손에 든 사절단들이 들어왔다.

아마 더 이상 이렇게 만족스러울순 없을거야-

건국제 행사를 즐기며 행복해하던 페이라의 그런 생각이 깨지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막대한 공물을 들고 찾아온 로엔 왕국의 사절단에서, 있을수 없는 얼굴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을거라 놓아버렸던 그는

혹한의 계절, 에일듯한 추위와 함께 돌아왔다.

비의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은 그녀를 시린 눈으로 응시하면서.

페이라는 진실로, 그를 다시 볼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황족이 점찍어둔 여자를 데리고 도망갔다.

그것은 아주 큰 중죄인데다 여자를 뺏긴 당사자가 길길이 날뛸 정도로 분노했으니

잡히면 죽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페이라는 그들이 소국으로 망명해서 숨어 살거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항구도시쯤 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런 공석에서 이웃나라의 사절로 당당하게 마주칠줄은 몰랐기에

페이라는 자신의 눈이 잘못된것은 아닌지 몇번을 깜빡거렸다.

"레온하르트국의 황제폐하와 황후폐하를 뵙습니다."

찬란했던 금발은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이 되었지만

페이라는 그라는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남은 미련이나 사랑, 또는 추억과는 다른 오랜 시간동안 학습된 익숙함이었다.

말할때의 억양이라던가 목소리의 고저, 사소한 손짓과 발걸음까지.

머리색만 바뀌었을뿐 얼굴과 모든 행동들이 딱 리오넬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온거야?'

레온하르트가 그녀에게 청혼한 순간 이외로 이렇게 놀란적이 있을만큼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있었다.

그에게 애정 비슷한 감정은 한줌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십삼년을 함께한 벗이었고, 첫사랑이었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걸었던 이다.

그의 행복을 위해서 놓아준 만큼, 자신이 포기했던 것의 무게만큼 잘 살기를 바랬던 그가

황제에게 찢겨죽는 모습은 별로 보고싶지 않았다.

그리고 황제는 미묘하게 질투가 많은 이였다.

행여나 이상한 오해를 사 그 다정함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다.

"로엔 왕국의 사절단 대표로 임명된 리온 아스트라트입니다.

올해의 공물은 황후폐하를 위해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즐겁게 받아주시길."

예를 갖춰 인사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할수도 없이

페이라는 긴장으로 온몸이 바싹 굳은 채였다.

그때 황제가 페이라의 손을 꾹 잡는게 느껴져

아차 싶어 옆을 바라보니 황제도 그녀와 같이 매우 딱딱한 표정이었다.

아니, 그를 노려보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황제의 그런 반응을 보니 그도 리오넬을 알아본듯 싶었다.

그러자 페이라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리오넬이 이곳에 사절단으로 왔다는것은 차치하고, 그가 다시 황제 앞에 나타남으로 인해

황제는 그의 처분과 동시에 그가 귀애했던 여자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녀가 황궁에 머물렀던 구개월동안 어찌나 레온하르트가 그녀를 끔찍히 위했는지

이 홀에 있던 귀족들은 다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런 그녀가 돌아온다면...

페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귀족들은 그의 등장에 이미 숙덕거리고 있었다.

리오넬은 페이라를 따라 황궁에 제 집 드나들듯이 오갔던 터라 귀족들도 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정계에 있었던 귀족들은 이미 한명 두명씩

그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공물은... 감사히, 받겠네.

허나, 문제가 하나 있는거 같네."

소란한 가운데서 황제가 이를 악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병사들에게 손짓하여

리오넬을 잡으려고 신호를 하려는 찰나 다른 로엔 사절단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저희 로엔 왕국은, 이번 공물을 마지막으로 독립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 옆의 리온 아스트라트 공이 마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으며

왠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황제조차 눈을 크게 떴다.

페이라도 경악을 금할수가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검사.

드래곤과 소드마스터가 사라진 이래로 찾아볼수 없는 재능이었다.

마법을 쓰는 자도 매우 드문데다가 마법을 씀과 동시에 검의 재능도 가진 자가 근 이백년동안 없었던지라

마검사의 존재라는것은 거의 옛날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마법사 한명을 가진 나라도 몇 나라의 군대를 합한것과 같은 국방력을 가질진데,

거기에 검사의 자질까지 갖췄다면 대륙을 제패하는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마검사가 로엔 왕국에 존재한다고?

모두가 귀신을 본듯한 표정으로 리오넬을 바라보았지만

리오넬은 그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담한 표정이었다.

일단 마검사의 존재가 로엔 왕국에 있다는걸 사절단이 공표한 이상, 함부로 그를 잡을수가 없었다.

어쩌면 제국의 존속마저도 위협할수 있는 발단이 될수도 있는 일이었으므로.

지금의 제국은 페이라가 있음으로 인해 강력한 국방력은 가지고 있지만 마검사와 대치했을때

누가 이길수 있을지는 알수 없었다. 여태까지 마검사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페이라의 마력이 리오넬보다 강력하여 레온하르트국의 승리로 끝날수도 있지만

그의 실력이 뛰어날경우, 참패를 당할수도 있다.

둘의 실력이 비슷하면 양쪽 국가 다 전멸할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사실

마검사의 존재 선언을 들은 이상에야 로엔 왕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양 측이 좋은 상호관계를 성립시키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그가, 마검사라는, 증거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레온하르트가 짓씹듯이 답하자

리오넬이 바로 앞으로 나와 검을 꺼내 검기를 만들어냈다.

주변 병사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전투 태세를 취했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그는 검기를 더 압축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가 검을 가볍게 한번 휘두르자 검 끝이 닿지도 않을만큼 먼 페이라 옆의 휘장이

깔끔하게 잘려나갔다.

"꺅!"

".....무슨!"

비록 휘장이었지만 황제와 황후는 그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오넬은 황후에게 적의를 보이고 있었다.

위협을 느낀 황제가 페이라를 감싸안았고 그녀는 덜덜 떨면서

황제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 모습을 본 리오넬의 눈가가 가늘어졌지만 분노한 황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격정에 못이겨 소리질렀다.

"지금 뭐하는 짓인가!"

홀을 쩌렁쩌렁울리는 고함에도 불구하고 리오넬은 미동 하나 없었다.

"증명하시라기에."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마냥 검을 검집에 집어넣은 후

짧은 대답과 함께 서있을 뿐이었다.

제국의 황권에 도전한듯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홀 내의 귀족들이 술렁였지만

어느 하나 선뜻 나설수 있는 이가 없었다.

가볍게 휘두른 검으로 멀리있는 휘장을 동강낸 그다.

실력을 가늠할수는 없지만 그가 만약에 진심으로 공격한다면 이 홀 내부의 사람은 물론이고

왕궁 전체가 어찌 될지 장담할수 없었다.

페이라는 강력한 마법사였지만 전쟁에 나간적은 없었고 칠년전 그날은 그녀도 모를 정신으로

황제의 군대를 태워버렸을뿐, 리오넬이 진심이 된다면 제대로 대응할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로엔 왕국의 사절단은

그의 힘을 믿어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국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인지

그런 그를 흐뭇하게만 바라보고 있었고

제국의 귀족들만 잔뜩 긴장한 채로 황제와 황후를 주시했다.

"증명은 이제 되었으니, 두번다시 황후에게 그러한 무례를 벌이지 말게."

아직 격정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황제가 리오넬에게 말하며

진정하라는듯 황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그대들이 원하는게 독립이라고 했지?

좋아, 허가를 내어주지. 그러니 어서 꺼져."

황제답지 않은 언사였지만 로엔 사절단은 원하는 바를 이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릴 뿐이었다.

사절단은 오늘은 물러가겠다며 건국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빈정거림일지 아닐지 모를 말과 함께

등을 돌렸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레온하르트는 이마를 짚었다.

이웃나라였지만 속국과도 같았던 나라가 독립을 요청하고, 그 나라에 마검사까지 있다니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로엔 왕국은 황자 시절에 황태자의 자질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군대를 대동해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라여서

어떻게 나올지 더더욱 가늠할수 없었다.

그동안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나.

제국의 유지가 걱정됨과 동시에 여차하면 페이라가 마력을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대한 걱정에

레온하르트는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다.

일단 왕국의 독립을 허가하는 절차는 짧지 않으니 한달간 사절단을 왕국에 머무르게 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했다.

건국제라고 들떴던 홀의 분위기는 전에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고 모든 귀족들은 황제 부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페이라 또한 그 잠시동안 벌어진 일들에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으며 고민하는 황제를 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물러갔다고 생각했던 사절단중 돌아가지 않은 이가 있었다.

리온 아스트라트, 과거에는 평민 기사 리오넬이었을 자가 냉기 어린 표정으로 홀 가운데 서 있었다.

황제가 그를 발견하고 인상을 찡그려 마저 축객령을 내리려는 찰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름답고 지고하신 황후폐하께, 독대를 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홀은 다시 얼어붙었다.

황제는 물론, 그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혹시 모를 암살을 대비함이었다.

어찌하여 그가 독대를 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다시 나타남으로 인해 페이라는 모든것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방으로 돌아왔는지.

그는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번씩 꾸준히 독대 요청을 했고

그에 맞서 황제는 꾸준히 거절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지난 이주동안 벌어지고 있었다.

페이라도 왠만하면 그와 마주칠만한 장소에는 가지 않았고,

행여 그를 마주치더라도 금세 시녀들과 함께 급한 일이 있는것처럼 자리를 피했다.

그렇지 않아도 속국의 공작으로 귀환한 반역자에 대해 귀족들 사이에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가쉽거리를 더 추가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이주일이 지나고 페이라가 어지러운 마음을 달랠겸

온실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시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페이라님, 문밖에 이것이 놓여져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녀가 페이라에게 건낸것은 길쭉한 머리장식이었다.

그것의 가장자리에는 화려한 벚꽃 장식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가운데 분홍색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황제 폐하가 보내신걸까요?"

황제 폐하는 참 황후폐하를 사랑하신다며 상기된 볼로 재잘거리는 시녀의 말은 이미 페이라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리오넬이 그 여자와 도망가기 전 페이라가 리오넬에게 주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페이라는 그가 이벤나힘 영토를 떠나기 전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십삼년을 함께 했기에 페이라는 리오넬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고 유독 그즈음의 그는 이상했기에

페이라는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걸 바로 알수 있었다.

리오넬의 도주날,

페이라는 그가 떠날 채비를 모두다 마쳤다는걸 알았지만

혹시 모를 희망감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놓을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자와의 약속장소에 가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령을 빙자하여 페이라를 안게 했고

의심을 사면 안된다는 압박감때문이었을까, 리오넬은 거부하지 않았다.

페이라는 잠든 척을 하며 리오넬이 그녀를 선택해 주기를 바랬지만

리오넬은 그녀가 잠이 들었다 생각하자 그의 짐을 갖고 훌쩍 떠나버렸다.

그날밤 페이라는 선택받지 못한 비참함과 돌아오지 않는 혼자만의 사랑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멈출수 없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와 주진 않을까, 침대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지만

동이 틀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페이라는 그녀의 집을 쳐들어온 레온하르트의 명을 받아야만 했다.

리오넬의 도주를 추적할 준비를 하면서,

차라리 그가 멀리 도망가 그녀가 그를 찾을수 없기를 바랬다.

그를 다시 보게되면 욕심이 나서 견딜수 없을거야, 그를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게 될거야.

스스로 그 말을 반복하며 그녀는 문을 나섰고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것은

그녀가 지난 밤 몰래 리오넬의 짐에 넣어놓은 자신의 머리장식이었다.

그 장식을 보면 한번이라도 나를 떠올리겠지, 계속 갖고 있진 않더라도

차라리 팔아서 내게서 멀리 도망갈수 있겠지.

이기심인지 그를 위한건지 모를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를 쫓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었기에.

가질수 없다면 차라리, 내손으로 끝내버리자.

흉악한 질투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끝끝내 그들을 찾아냈지만,

그 여자를 감싸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다.

그를 다시 볼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것만큼,

그 머리장식을 다시 보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던 페이라였기에

페이라는 시녀가 들고있는 머리핀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나가시겠어요?

아주 예쁘실거에요. 페이라님의 금발과 딱 어울리는.... 꺅!"

시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기도 싫다는듯 페이라는 그 장식을 빼앗아

벽에다 던져버렸다. 충격을 받은 머리장식은 두동강이 났지만 그것으로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듯

페이라는 계속 그것을 노려보고 있었다.

한번도 험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페이라였기에 모든 시녀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굳은 그녀의 표정은 풀릴줄 몰랐다.

"황제, 폐하가, 주신게 아냐."

이를 악물고 대답한 그녀가 상당히 화가 났다는걸 깨달은 시녀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고

페이라는 남은 치장은 필요없다는듯 방을 나섰다.

"저 쓰레기는, 버려버리렴."

단 한마디 말을 남긴채로.

온실로 나온 페이라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 장식을 보자마자 리오넬과의 추억과 함께 보답받지 못한 마음과

모든 과거의 일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그 머리장식은 그녀가 과거에 너무나 아끼던 것이었고,

페이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열아홉살에 처음으로 사교계에 데뷔할때

이벤나힘 공작이 기념으로 사줬던 장식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이 만든 드레스와

그 장식을 착용했을때, 리오넬은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부끄러워 자꾸 숨으려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무나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특히나 너의 금발에는 그 장식이 잘 어울린다고

그가 그렇게 말해줬을때부터 그 물건은 페이라의 가장 소중한것이 되었다.

그 이후 그와의 관계가 변하고 그는 두번다시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래도 그날의 그를 잊지 못하며 매일같이 그것을 착용했었다.

그가 도망간날 그에게 줌과 동시에 기억속에서 잊고 있었건만

칠년만에 그 물건을 다시 마주하자 모든 과거가 그녀에게 물밀듯이 덮쳐오는 느낌에

더욱더 저조한 기분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만의 상념에 빠져있을 찰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페이라를 돌려세웠고

그녀가 자신을 잡은 이를 바라보자 그곳에는

이주동안 피해다닌 그가 있었다.

"황후폐하."

그녀를 황후라 부르며 직시하는 그의 눈은 너무나 낯설었다.

오랜시간을 함께 했지만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었다.

차가운것 같으면서도 어찌보면 열망이 가득한것 같은 눈.

"이, 이손..."

"페이라."

그렇게 애원했을땐 부르지 않더니.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망의 감정이 떠올랐다.

사랑은 아니었다. 미련도 아니었다.

그저, 야속할 뿐이었다.

왜 내가 바랄땐 나를 버리고 가놓고선 이제와서 왜 이러는거야-.

십이년동안 한사람을 바라본 사랑의 댓가는 너무도 쓰디 썼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 대한 마음을 접자

그에게 품었던 모든 애정들은 사라지고 시커먼 마음이 그 위를 덮었다.

그렇게 버리고 갔으면 돌아오지라도 말지, 마검사란 존재로 돌아와서

그녀의 안온한 일상을 흔드는 그가 그녀는 달갑지 않았다.

레온하르트의 비가 되었어도 그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있던 초반이었다면

그의 귀환에 마구 흔들렸을지도 몰랐겠지만

레온하르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지금은 그의 존재가 너무나 성가셨다.

특히나 둘의 사이를 망칠수도 있는 존재라면 더더욱.

"이손 놓으세요 아스타로트 공.

그리고 예를 갖추세요."

약간의 분노가 담긴 억양으로 페이라는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명령했다.

"나는 레온하르트의 황후입니다.

함부로 이웃나라의 사절이 손을 댈수 있는 몸이 아니니 물러서세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발짝 뒤로 물러서자

그는 믿을수 없단 표정을 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온실은 외부인이 출입할수 없는 곳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명백한 축객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동 없이 페이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다.

그에 페이라가 당황하여 두 발짝 더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가 차갑게 표정을 바꾸곤 다시 페이라의 손목을 잡아왔다.

"그래, 이제는 지고하신 몸이 되었다 이건가?"

그의 말에 바싹 굳은 페이라의 등을 살살 어루만지며 리오넬은 말을 이었다.

"페이라, 나는 그래도 너를 이해해.

너는 연극에 놀아나고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널, 구해주러 왔어."

뜻모를 말을 속삭이는 그가 너무도 낯설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품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페이라, 페이라... 가련한 나의 페이라.

항상 이용만 당하고 진실은 알지 못하지.

예전의 나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울음 섞인 목소리에 그녀가 그를 급히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막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행동은 너무나 다정하여 그녀는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리오넬은 그녀의 귀에 꽃을 꽂아주며 마치 연인처럼 볼을 쓰다듬었다.

"나를 거부하지 마.

나는...."

"페이라!!!!!"

어느새 온실에 들어온 황제가 노성을 지르며 페이라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바짝 든 페이라는 그를 다시 한번 뿌리쳤고

너무나 손쉽게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성큼 다가온 레온하르트가 그의 뒤에 페이라를 감췄다.

그가 흉흉하게 리오넬을 바라보았지만 리오넬은 그와 반대로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경계심 어린 황제의 말에도

리오넬은 그저 능청스럽게 황후폐하께 어울리는 꽃을 찾아드렸을 뿐이라며

독대 요청이 거부당하는데 이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냐 말했다.

"독대 요청을 거부했다는것은, 황후와 어느 접촉도 허하지 않겠단 말이었네.

두번 다시, 내 황후에게 손대지 말게."

"그렇군요 폐하. 하지만 말입니다, 전 꼭 해야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불허하니 황후의 곁에 다가오지 말게.

너는, 네가 가진것이나 잘 챙겨."

네가 가진것.

그 말을 듣자마자 리오넬의 표정이 그보다 더 차가워질순 없을것처럼 냉막해졌다.

페이라는 그의 표정으로 황제가 건드려선 안될것을

건드렸다는걸 알았다.

"제가 가진것? 애초에 폐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리오넬이 맞받아치자 이번엔 황제의 기세가 사나워졌다.

"네가 탐내 가져갔으면 이제 너의 것이지."

황제의 말로 인해 그가 뜻하는 바가

함께 도망갔던 그 여인임을 알았다.

"그럼 황후 폐하도 제가 가져가면 저의 것인가요?"

그의 도발에 황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는듯 손을 들었다.

페이라는 리오넬을 때리려는 황제의 팔을 붙잡고 그의 앞으로 나섰다.

"리오넬."

그가 도망가기 전, 항상 페이라가 불렀던 그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다정히 부르자 황제의 팔에서 힘이 빠졌고 리오넬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페이라는 이제는 정말로,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도망간 이를 위해 알량한 죄책감과 지독한 감정으로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이런식으로 그녀를 흔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페이라는, 칠년동안 황제의 사람으로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었다.

그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페이라가 결정한 일이었다.

"나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아요."

페이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리오넬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고

황제는 뒤에서 그녀를 단단히 고쳐안았다.

그녀는 너따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듯이.

"나는, 레온하르트를 사랑해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빼앗을순 없어요. 몸도 마음도, 저는 폐하의 것이니까요."

페이라는 지난 칠년동안 레온하르트에게 한번도 사랑한단 말을 한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신이 그가 절절히 아꼈던 이를 빼앗아 간 이유도 있었지만

그녀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때, 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상처받을게 두려워서였다.

리오넬에게 거부당한 상처가 너무 커 차마 말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변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번이나 잃을순 없어.

레온하르트의 곁에 있기 위해 그녀는 한번도 노력해본적이 없었다.

무엇이든 그녀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가 채워주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관계를 부수려 한다면 그녀는 가만히 있을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의 연인에 의해

현재의 사랑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레온하르트는 꽤 놀란 모양이었다.

페이라를 안고 있는 손이 미약하게 떨리는게 느껴졌다.

페이라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리오넬을 응시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말은 많은것을 함축한 말이었다.

당신을 사랑했어서 미안해요.

당신을 강제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받아들일수 없어 미안해요.

리오넬은 믿을수 없단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페이라가 그를 진심으로 거부할거라 생각조차 못한듯 보였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렇게 절절하게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수가 있어.

책망하는 눈빛이 그녀의 전신을 찔렀지만 페이라는 단호하게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칠년만의 이별이었다.

근 이백년동안 없던 마검사의 등장으로 인해 승기는 로엔국이 잡고 있는듯 보였다.

하지만 회의의 핵심점인 리오넬이 그 날 이후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아

제대로 된 회의가 불가능했고 그의 부재로 인해 사절단의 체류기간만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레온하르트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끌어올것인지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생각 외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페이라는 계속 고생하는 레온하르트가 안쓰러워

마검사에 대한 자료라도 찾아보고자 왕궁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그저 소설에 기반한 추측성 내용이 대다수였고

쓸만한 정보는 건지기 어려웠다.

그렇게 몇시간동안 여러 책을 펼쳤다 접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는 없었다.

페이라는 지친 눈을 감았다 뜨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런 그녀의 뒤로 그늘이 져 고개를 젖혀 올려다보자

한달간 두문불출하던 리오넬이 그곳에 있었다.

"페이라."

한달동안 잘 먹지 않았는지 그의 외양은 매우 수척해져있었지만

안광만은 한층 더 흉흉했다.

"리오넬."

그때 충분히 자신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했건만.

페이라는 그에게서 한발자국 더 물러섰다.

예전에는 그렇게 닿고 싶던 사람이었건만 사람의 마음이 참 우습다 싶어

그녀의 입가에는 비소가 드리워졌다.

"페이라, 아가씨 너는, 속고있는거야."

속고있다- 그때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도대체 무엇을?

"나는, 나는 정말이지.....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듣고 싶지 않다며 그를 밀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론 항상 숨어있던 의구심이 싹을 틔웠다.

한번 들으면 돌아가지 못할걸 알면서도 페이라는 그 자리에서

한발짝도 움직일수가 없었다.

대신에 그가 돌아온 후 제일 궁금했던것을 그에게 물었다.

"그녀는요?"

페이라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리오넬의 표정이 그때 그 온실에서와 같이

험악해졌다.

"그 개같은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 그래,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하겠지.

그 여자때문에, 아니, 빌어먹을 황제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거니까."

리오넬은 분노를 삼키려는듯 한동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리오넬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건 연정이었다.

페이라의 세계에 리오넬만이 존재했듯, 리오넬의 세계에도 페이라만이 존재했다.

단지 그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뿐.

조그맣던 소녀는 자랄수록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며

항상 보여주던 만면의 미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리오넬은 항상, 그것이 지켜주지 못했던 여동생을 떠올리는 추억에서 비롯된

마음이라 생각했다.

리오넬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곱살때 도적떼에 부모를 잃었다.

부모는 마을에서 집과 함께 태워졌으며

하나뿐인 여동생은 리오넬과 도망치다 도적떼의 화살에 심장이 관통당해 죽었다.

입에서 피를 토하던 그녀의 손이 무척이나 따스했던걸 기억한다.

숨이 제대로 끊어지기도 전에 리오넬은 살고자 그 손을 놓고 달아났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주박이 되었다.

그는 이년동안 쓰레기를 뒤지며 생활하다 이벤나힘 공작에 의해 페이라의 종으로 주워졌다.

리오넬이 처음 페이라를 보았을때 그는 그녀의 금발에서 자신의 동생을 떠올렸다.

도망가는 등 뒤로 오빠, 하고 작게 불린것 같기도 했으나

끊임없이 달리기만 했던 자신.

리오넬은 어렸지만 자신이 무슨짓을 했는지는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리오넬은 페이라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투영했고

동생처럼 그녀를 아꼈다.

한번 학습된 선입견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리오넬은 페이라가 자신을 마음에 담는것을 알았으나 자신의 마음은

항상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를 만날 당시의 리오넬은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페이라가 열여덟살의 생일을 맞은 해에, 황궁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짜증과 성질은 극에 달했고 그는 그녀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이벤나힘 공작의 명을 받아

호위로써 묵묵히 그녀를 황궁까지 데려다 놓았다.

그렇게 반년,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이벤나힘 공작은 야망이 큰 자였다.

공작가로 만족할수 없어 황가를 삼키고 싶어하였고

이벤나힘은 황족과 혼인이 불가능하니 페이라를 정부로 들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페이라를 전 황태자에게 바쳤다.

전 황태자는 자신의 사람은 아끼는 자여서, 사생아를 낳게 되더라도

자식으로 인정할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전 황태자는 이를 기꺼이 여기고 그녀를 취했다.

페이라는 처음엔 거부했으나 이벤나힘 공작이 그녀가 리오넬을 마음에 담아둔걸

빌미로 그녀가 뜻에 따르지 않겠다면 리오넬을 전장으로 보내

사고사로 처리해버리겠노라 협박했다.

페이라는 그리하여 전 황태자가 폐위될때까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었다.

유독 짜증이 심했던 날, 페이라는 이벤나힘 공작이 억지로 준비시킨 선물을

마차에 두고 황궁으로 향했다.

페이라가 실수로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리오넬은 그것을 챙겨 그녀가 머무르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황태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다.

리오넬은 그 순간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리오넬은 페이라가 그를 위해서 그랬단 사실을 몰랐으며

깨끗했던 그녀가 더러운 존재라고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페이라가 그를 침실로 불렀을때 다시 한번 실망하며

그녀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냉정했고 페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명령이란 말로 그를 한껏 휘둘렀다. 페이라로써는 벼랑 끝에 몰린 발악이었지만

그때의 그는 알수 없었다.

전 황태자가 폐위되고 새 황태자가 들어섰지만

이미 둘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망가져있었고

소중한것을 잃었다는 허무함에서 빠져나올수 없던 리오넬은

무도회에 참여한 페이라를 따라 간 왕궁의 정원에서 세이라, 그녀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미색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이름도 비슷하고 예전의 순수했던 페이라를 보는것 같아 그는 금세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첫만남에, 세이라는 왕궁의 정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황태자가 바쁜 틈을 타 몰래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것인지 스텝을 헷갈리며 헛발질을 하는 모습이

처음 춤을 배우던 페이라가 생각나 리오넬이 낮은 웃음을 흘리자

사람이 있을거라곤 생각 못했는지

세이라는 깜짝 놀라며 옆 분수에 빠져버렸다.

그가 놀라 달려가 사과를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녀는 복수라도 하듯 그를 잡아당겼고 리오넬은 그 반동으로

그녀와 같이 분수에 빠져버렸다.

그런 모습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리오넬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것이 첫 계기가 되었다.

돌아오는 마차안에서 어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냐고 페이라가 채근해도

그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았을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생각나 슬핏 미소지었는데 그것이 페이라의 심기를 거스른것인지

그날 밤 또 그녀의 방으로 불려갔지만 어쩐지 그녀를 세이라라고 생각하자

평소처럼 그 행위가 역겹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페이라를 따라 간 황궁에서그녀를 몇번 더 마주치게 되었고

둘은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둘다 평민 출신이다 보니 통하는것이 많아 리오넬은

그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꽤 기다리게 되었다.

만날때마다 세이라는 종종 황궁이 답답하다고 그에게 불평하곤 했다.

몇번 그 말을 듣자 리오넬은 그녀에게 몰래 황궁을 빠져나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그렇게 가끔 시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숲길을 걷기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갔다.

시종을 따돌리는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도 세이라는 항상

수완좋게 빠져나오곤 했으며 그렇게 그와 그녀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했다.

그렇게 지내길 육개월, 그의 마음은 어느새 그녀에게로 기울게 되었다.

세이라는 많은것이 페이라를 닮아있었다.

웃을때 입을 가리는 습관이라던가, 자주 마시는 차의 종류,

선호하는 드레스 스타일과 색등등

사소한것부터 큰것까지 페이라를 떠올리는 구석이 많은 여자였다.

그래서 가끔 그녀의 모습에서 페이라가 비쳐보일때마다 가슴 한켠이 선득해졌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가씨는 어느새 자신을 속박하는 괴물이 되었는데,

혹시 이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의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세이라는

항상 한없이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고결했다.

황태자의 정부라고 소문난것과는 달리

그녀는 권력보다 자유를 사랑했으며,

황태자로 인해 딸려오는 재물이나 부유함에 상관없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그런 그녀의 면모에 더더욱 매료되었고

더이상 황태자 옆에 선 그녀를 보기 힘들어졌을때,

모든것을 버릴 각오를 하곤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고백했을때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녀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도 같았노라며, 황태자의 정부란 자리는

자신에게 너무나 크고 버겁다며 자신을 데려가 달란 얘기를 들었을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한번도 황태자와는 동침한적이 없노라며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에게

그는 참지 못하고 입맞추고 말았다.

이거봐, 아가씨와는 달라.

무의식중에 스쳐지나간 그 생각이 훗날 경고와도 같았노라고

회상하지만 그때의 그는 알수 없었다.

단지 그녀를 세게 껴안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몇번이나 귓가에 읊조리며

행복을 만끽했을뿐.

그렇게 그는 바래 마지않던것을 얻은것 같았으나,

그 허상이 깨진것은 그리 머지 않은 날의 일이었다.

리오넬은 그의 주인인 페이라가 얼마나 명민하고 책략이 뛰어난지 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필요할땐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이라를 만날때는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 그들의 만남을 들키지 않게 노력했지만

페이라는 결국 알아버리고 말았다.

"네가 감히 나를 두고 그런 여자를 만나? 황제의 정부밖에 되지 않는 여자를?"

성질을 낼지언정 한번도 그의 앞에서 패악을 부린적이 없는 페이라였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은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세이라를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악을 쓰며 소리질렀다.

그당시의 리오넬에게는 세이라가 유일한 빛이였으며 희망이었기에

그런 그녀를 망치겠다는 페이라가 악을 쓰는만큼 증오스러웠다.

이미 리오넬에게 페이라는, 인간 이하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인생을 권력으로 휘두르는걸로도 모자라서,

그토록 고결한 여인의 목숨마저 한낱 질투로 앗아가겠다니.

리오넬은 그날,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페이라의 뺨을 때렸다.

맞은 뺨을 부여잡으며 믿지 못하겠다는듯 리오넬을 바라보다

페이라는 그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트렸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맞은 그녀는 더 악에 받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대다

주위의 물건을 그에게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계속 패악을 부리며 죽여버리겠다는 페이라의 모습이

얼마나 환멸스러운지.

리오넬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페이라를 협박했다.

페이라가 자신에게 집착하니 그 집착을 반대로 이용할 수밖에.

세이라를 건드리겠다면, 그도 죽어버리겠다 말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필요 없노라고.

어차피 자신은 당신의 개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삶에 미련따윈 없다고.

그녀가 죽어버리면 자신은 삶의 목적을 잃는거나 마찬가지라고.

고저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한 리오넬을 본 페이라의 모든 행동이 순간 멎으며

그를 믿을수 없단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네가... 죽겠다고?"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제게 큽니다, 하는

리오넬의 말을 듣자마자 페이라의 눈이 크게 뜨였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목숨마저 바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웃는듯 우는듯, 묻는듯 혼잣말하듯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녀는

이윽고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의 그런 행동들은 마지막 발악이었으나,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다.

단지 그런 그녀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섰을뿐.

페이라는 그 후로, 리오넬을 밤에 부르지 않았다.

리오넬도 그녀에게 일정 거리 이상 닿지 않았다.

그렇게 몇달을 지냈을까.

세이라와 도망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의 숨통이 트이는것 같았다.

더이상 나를 속박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이었는지.

진짜 소중한것이 뭔지 모른채 짓밟아 버린 자신을

후에 얼마나 원망하며 후회했는지.

약속의 날,

페이라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단듯이 그를 불렀다.

세이라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의심을 사는 순간

모든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걸 알기에 욕을 삼키며

그녀를 안았다.

지친 페이라가 잠에 들었고 평온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

순간 둑이 터지듯 그에게서 모든 감정이 쏟아져나왔다.

원망스럽다. 네가 밉다. 증오스럽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지배했고 그대로 그녀를

찌르고 도망가버릴까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세이라와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가까스로 참고 저택을 나왔다.

그녀가 자신을 잡아두는 사이에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

세이라가 가버린것은 아닐까, 그는 마음졸이며 약속장소로 향했다.

세이라는 약속장소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리오넬은 어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도주한후 이주쯤 지났을까.

제국의 눈이 닿지 않는 작은 나라로 도망치려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숲을 지나고 있을때였다.

바스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인영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 인영은 리오넬이 그토록 만나지 않길 바랬던 페이라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둘을 응시하며 하늘로 신호를 쏘아 올렸다.

기사였던 리오넬은 그것이 곧, 황태자의 기사단을 부르는것임을 알았다.

리오넬은 이대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느냐,

페이라의 마음에 호소하느냐 고민하다 이내 무릎을 꿇었다.

"공녀님, 제발 저희를....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리오넬은 그가 그녀를 그렇게 증오스러워 하면서도 쉬이 놓지 못했듯,

그녀도 그러한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갖고싶어했는지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상관없다는듯 권력으로 짓누르면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고 원했던것이 아니었던가.

"아가씨, 제 일생동안 단 한번의 소원입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못본척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한번쯤, 그녀에게 구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와 함께했던 십이년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을 지켰듯이,

그녀의 권력놀음에 인형마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모든것을 다 들어줬듯이,

그녀의 마음에 한번쯤은 호소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페이라는 그의 애원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듯,

모든것을 포기한 미소를 지었다.

"...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신 보지 말아요."

감정에 호소했지만 그게 실제로 통할줄은 몰랐던

그가 순간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란것도 잠시,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기에 그는 세이라를 챙겨 달아났다.

끊이지 않는 산림속에서 어렴풋이 그녀가 겪게 될 일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은 그녀의 업보라고 생각한 그는 앞으로

세이라와 함께할 미래만 그리고 있었다.

그것이 모두 다 허상이라는것을 알지 못한 채로.

처음엔 모든게 다 만족스러웠다.

노숙하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다.

같이 토끼를 잡는다던가, 고기 스튜를 만든다던가 하는

사소한 일마저 연인과 함께한다는 기쁨에 한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곳곳을 옮겨다니길 몇개월후,

간신히 산속에 버려진 오두막집에 그들의 터를 잡게 되었다.

풍요롭게 살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한다면 모든것이 순조로울것 같았다.

오두막집을 청소하고 간신히 사람이 살만한곳으로 만든 날 밤,

리오넬은 다시 한번 세이라에게 청혼했고 그날 사랑을 확인하며

그녀를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할수 없었다.

리오넬이 본 세이라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데,

페이라의 권력놀음에 놀아난 그가 너무 더러운것 같아서

그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세이라는 괜찮다며 그를 기다려주었지만

그는 일년이 넘게 그녀의 몸에 손을 댈수가 없었다.

처음엔 모든것을 포용할 듯이 다독여 주던 세이라였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도 예민해져갔고

리오넬과 그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다.

-왜 이렇게 된거지?

자신의 연인도 제대로 사랑해줄수 없음에 리오넬은 절망했다.

이 모든게 그 지긋지긋한 페이라 때문이라 생각하며 페이라를 저주했다.

그런데 웃긴 일이었다.

세이라를 가까이 할수록 그의 머릿속에선 페이라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세이라가 미소지을때마다 어린 페이라가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이 생각났고,

세이라가 무엇인가 실수할때마다 뭐든 똑부러지게 처리하던 페이라가 생각났다.

세이라가 무엇을 하던, 그 끝에는 페이라가 있었다.

생각은 돌고 돌아, 리오넬이 첫 황태자와 페이라와의

관계를 알게 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더라.

고귀한 귀족가의 영애가 황태자에게 창부와 다를것 없이 굴고 있다?

그렇게 고고한척 하더니 겨우 이거였나?

어째서 내게 얘기하지 않았지?

아니, 모두 아니다.

그때 리오넬이 했던 생각은-.

왜 내가 아닌거지.

그걸 떠올리자마자 리오넬은 벼락을 맞은듯,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페이라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녀가 그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이켜본후그제서야 페이라를 이해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몰려있었음을.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말도 못한채, 모든것을 그 작은 몸으로 버텨내고 있었음을.

자신은 정치에 밝진 않았지만, 이벤나힘 공작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았다.

그리고 페이라가 그의 목숨을 담보로 끌려다니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페이라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음만큼 배신감은 증오로 바뀌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것이다. 눈앞에 두고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그녀와 닮은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세이라에게서 찾고 스스로 사랑이라 속였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세이라는 페이라가 아니었으니까.

모든것을 깨달은 그가 세이라에게 사실을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자고 집으로 돌아왔을때,

그녀는 창밖으로 새를 날려보내고 있었다.

바깥에 서있던 그가 새의 다리에 매달린 쪽지를 보곤 바로 그 새를 낚아챘고

세이라는 그런 그를 저지하려 했으나 리오넬의 손이 조금 더 빨랐다.

리오넬이 쪽지를 펴 읽은 내용에는 그가 아직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잠결에 페이라를 찾는다고만 쓰여져 있었다.

그는 세이라를 즉시 추궁했고, 이윽고 세이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경악케 했다.

"당신을 유혹하라고 황태자에게 명령받았어.

이벤나힘을 원하는데 당신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거라고.

이용해서 이벤나힘을 집어삼킬거라고.

난 뒷배도 돈도 없는 가난한 평민이니까.

뒷골목에서 구르면서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일에 성공만 하면 평생 섭섭치 않게 챙겨준다잖아? 어떻게 거절하겠어."

리오넬이 세이라에게 가진 마음이 사랑은 아니었지만 신뢰는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는 만들어진것에 지나지 않았고 세이라의 모든것이 거짓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같이 이벤나힘의 공녀 흉내를 냈지.

정말 지겹게도 훈련시키더군. 심지어 손가락 하나 드는것마저 똑같이 시키더라니까.

여튼 미안하게 됐어. 당신은 그래도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쏟아낸 말이 귓가엔 들리는데 머리론 이해를 할수 없었다.

주위의 모든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질뿐,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그의 복부를 칼로 쑤셨을때도 무엇이 일어난건지 알수 없었다.

"황태자가 말야, 발각되면 죽이라고 했어. 명복은 빌어줄게."

그녀는 곤란한듯 웃으면서 칼을 돌려 빼곤 더 높게 치켜들었다.

"이젠 안녕."

이윽고 그녀의 칼이 그의 목을 그었고 그의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흐려지는 시야너머로 칼을 버리곤 밖으로 나가는 그녀가 보였다.

그후 얼마가 지났을까, 멀어져가는 정신속에서도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녀가 밖에서 불을 지른 것이리라.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평생 누군가에게만 휘둘리면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지긋지긋하다고 느꼈다.

서서히 감기는 눈 사이로 한줄기 눈물이 흘렀다.

페이라.

페이라 이벤나힘.

사랑인줄도 모르고 병신같이 제 손으로 짓밟고 버렸다.

후회인지 회한인지, 꿈꾸듯 부유해가는 의식속에서 어린 그녀의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다시 한번만, 한번만이라도 좋다. 그녀를 보고싶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그의 몸에서 엄청난 빛이 폭사되었다.

-그것이 마검사 리온 아스트라트의 각성이었다.

리오넬은 마검사로 각성한 후,

곧바로 의식을 회복해 수도로 올라가고 있던 세이라를 잡아 죽였다.

꺾이는 목 사이로 경악에 찬 눈동자가 보이자 리오넬은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웃었다.

한때는 사랑한다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건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았다.

단지 더 고통스럽게 죽일걸 그랬나 후회할뿐.

수도로 올라갈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세이라와의 도망으로 인해 자신은 범죄자가 되어버린 몸,

주변국으로 가서 마검사로의 자질을 증명한후 세이라를 되찾으러 가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소국 그란시아로 향했다.

그란시아는 제국의 속국이 되길 거부해

그를 만만히 본 야만족들의 침략에 고통받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곳에서 리오넬은 마검사란것을 숨기고 용병으로 활동했다.

그렇게 몇년동안 이나라 저나라를 옮기면서 용병에서 병사로,

병사에서 장군으로 그의 입지는

높아져 갔고 마침내 작은 소국들을 통합해 제국에 반기를 들려던 로엔 왕국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마검사인것을 밝히며 자신을 이용하면 제국과

대치할수 있다는 메리트를 어필하여 마침내 공작의 자리를 얻어냈다.

"아스트라트 공, 당신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신이 로엔 왕국의 공작이 될때 큰 힘을 쏟아준 책사 지베르헨은 가끔

그를 간파하듯 말할때가 있었다.

"당신같은 사람을 몇명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이룰수 없는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처음 당신이 이곳에 정착하며 공작위를 달라고 할때, 나는 당신이 원하는것이

지고한 권력인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거 같네요."

지베르헨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리오넬이 지향한것은 권력이 아니라, 페이라를 되찾는것이었으니까.

리오넬은 한번도 페이라를 얻을수 없을거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를 사랑했고 그녀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를 생각하는지

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만큼 그에게 끔찍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다는걸 곧 깨닫게 되었다.

리오넬이 오년 반동안 전장을 구를동안,

그는 언제나 생존과 살육의 가운데에 던져져있었기에

국가들의 정세에 대해 알지 못했다.

단지 베고, 죽이고, 살아남고의 반복이었을뿐.

그런 그가 공작이 된후 그의 적이 될 제국 황제 부부의 초상화를 받았을때,

그는 전에 없을만큼 서늘한 시선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왜냐면 그곳엔, 페이라가 더 할 나위 없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리오넬의 기나긴 고백이 끝났지만 둘 중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리오넬은 과거의 회한에 잠겨있었고,

페이라는 그녀가 들은 진실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잠시간의 시간이 흐른 후 페이라가 모든 생각을 정리했을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 반응은 너무나 메마른 것이어서, 리오넬은 맞게 들은것인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그와 같이 길길이 날뛸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아니,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는 황제와 그년때문에,

계락에 속았다는거야."

그녀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인지 그는 횡설수설 당황한 태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페이라는 그런 그가 우습다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이제야 납득이 가네요."

담담한 표정으로 리오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눈은 한점 흔들림이 없어보였다.

"왜 황제가 나를 죽이지 않는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무슨..."

그녀의 입에서 황제를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라도 바랬던 건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페이라에 의해 리오넬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사실 이상한 점은 많았어요. 애초에 이벤나힘의 힘이 탐났다면 반역의 죄를 물어서

가문을 찢어놓은 다음에 세를 늘리는게 더 쉬웠을거에요. 그게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테니까. 개국공신중 하나인 인벤나힘을 무너트렸다는건 귀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수 있는 훈장같은 것도 될수 있었고.

그런데 왜 황제가 나와 결혼을 했겠어요? 평화주의자처럼 희생 없이 이벤나힘을 취하려고?

그가 그런 평화로움을 지향했다면 처음부터 전장에 나가 황태자의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나였던거야.

사랑이든 호기심이든, 나를 손에 넣고 싶어서."

말을 마친 페이라는 리오넬이 여태껏 본적 없이 환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다.

"속았든 속지 않았든, 이미 칠년인나 지난 마당에 누굴 탓하고 무엇을 원망하겠어요?

어쨌든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고, 그 책임도 오롯이 당신 몫이 아니겠나요?

내가 이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아니, 페이라 나는!"

"이제와 얘기해봤자 변명일 뿐이에요. 당신도 나도. 그때는 그럴수밖에 없었어, 하며

도망가면 쉽겠죠. 다른이를 원망하면 순간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게 없던일이 되나요?"

연인에게 속삭이듯,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던 페이라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표정 한점없는 무표정으로 돌변했다.

"리오넬, 네 마음이 딱 거기까지였던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그런 정도의 마음.

이제와서 필요없는걸 내밀면서 구걸하지마."

리오넬은 그녀의 그런 얼굴을 알고 있었다.

항상 다정하게 한껏 꾸며진 얼굴로 웃고 있지만, 그녀는 제 사람이 아닌 이에게는 손속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 그녀의 선 안에서 밀려나 버렸다는것을.

그를 집어 삼킬듯 사나운 눈매로 노려보던 그녀는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씌우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번다시 나를 찾지 마세요.

예전의 당신은 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레온하르트가 내 사람이니까."

사르르 눈매를 곱게 접으며 웃은 그녀는 그의 어깨를 몇번 툭툭 털곤 그 자리를 떠났다.

리오넬은 페이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느꼈으나

그녀를 잡을수 없었다.

둘의 모든 대화를 몰래 기둥 뒤에서 엿듣고 있던 레온하르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곧장 황비의 침실로 향했다.

레온하르트는 사실 리오넬이 이렇게 떡하니 나타날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몇년전 세이라가 모든것을 들켜 그를 처리할수밖에 없었고

수도로 올라오고 있단 보고를 받았을때 리오넬에 대한건 끝난줄 알았다.

세이라가 올라오는 길에 시체로 발견되었단 소식도 들었지만

자신이 보낸 살수가 처리하고 떠난것이라 생각했을뿐,

그가 살아있을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심지어 그때문에 마검사로 각성했다니.

레온하르트는 페이라의 침실 앞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얼굴을 쓸었다.

페이라가 말한대로, 처음부터 레온하르트의 목적은 그녀가 맞았다.

처음 그녀를 본 이후로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수를 써서 계략을 짰고,

멍청한 리오넬이 다행히 그의 미끼를 물었기에 마침내 그녀를 차지할수 있었지만

리오넬이 돌아오는것은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페이라가 리오넬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노라 차갑게 일갈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수 없었다.

또한 모든것을 알아버린 지금

자신에게서도 등을 돌릴수 있다고 생각하니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들어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우왕좌왕하며 문가를 서성이는 찰나,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오세요."

페이라는 레온하르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듯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레온하르트는 손에 서서히 맺히는 땀을 문지르곤 죄인처럼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의 의자로 가서 앉았다.

뭐라고 입을 떼야하나 좌불안석, 어쩔줄 몰라하는 그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올려다보자 페이라가 눈웃음을 치며 그에게로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때, 그는 생각하기를 멈추었다.

열락의 시간을 보낸후

그의 팔을 베고 누워있던 페이라가 잠에 든것을 알았을때

레온하르트는 고해하듯 그녀에게 속삭였다.

"페이라, 내가 그대를 처음 본게 언제였는지 알아?

그대는 아마 빅터의 집무실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그대를 처음 본건 빅터의 침실이었어.

빅터가 빌려준 책을 돌려주러 갔었는데, 그곳에 그대가 있었지.

그대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채 그의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어.

그 와중에 빅터의 허리를 감은 하얗게 뻗은 다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시선을 놓을수가 없었어.

그러다 빅터와 시선이 마주쳤어. 빅터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겼단 표정을 짓고 있더군.

참 웃기지. 빅터는 항상 능력이 부족해

내게 열등감을 느꼈지만

나는 그래도 꽤 그를 좋아하는 편이었어.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그를 동정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를 본 날 이후로 상황은 반대가 되고 말았어.

사람이란게 이렇게까지 모순될수 있는지.

빅터는 줄곧 황제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번도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그 자리가 탐이 나는거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황태자였다면. 그대를 품는자가 나였다면.

난 평생토록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적이 없었기에

항상 대충 사는 삶을 살았었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나는 황제를 찾아가 황태자의 자리를 달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성과를 보인게 없었으니 당연히 거절하더군.

끈질기게 매달려서 겨우 기회를 얻었고,

나는 그 한번에 모든것을 걸었어.

다행히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나는 빅터의 자리를 빼앗았지.

비열하다고 말해도 좋아. 그렇지만 난 그만큼 그대가 절실했어.

리오넬과의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대의 마음은 너무나 견고했고 나는 틈을 내지 않으면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수 없을거 같았거든."

말을 마친 레온하르트의 눈에서 한 두방울씩 눈물이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적시었다.

얼마를 울었을까.

그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물기를 닦은 후

그녀를 껴안고 잠을 청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했다.

페이라가 미소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페이라는 지난 칠년동안 레온하르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가 누구와 무엇을 하던지 묻지 않았고 갖고싶은것을 말하는 법조차 없었다.

그저 그가 주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할뿐,

항상 다가가는 쪽은 레온하르트였다.

그런데 그 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페이라 쪽에서 그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황후가 된 후 레온하르트의 집무실에 단 한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그가 궁금하지 않았고 어련히 잘 있겠거니 할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리오넬의 고백을 듣고 난 후부터 그녀는 레온하르트의 집무실에

다과를 들고 찾아가 여러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가 여기사와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때 조용히 옆에 가서 팔짱을 낀다던가 소소하게 질투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변화가 매우 기꺼웠는지, 레온하르트는 최근들어 자주 웃게 되었고

사이 좋은 황제 부부의 모습에 황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절단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고, 협상은 계속 결렬되고 있었다.

리오넬이 사절단으로써의 활동을 시작해

한달간 지체되었던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양 국가간의 기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로엔 왕국은 마검사를 등에 업었기 때문인지 황제가 제안하는것을 족족 거절하며

이것저것 요구사항만 늘려갔다.

레온하르트는 최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점을 찾았지만

그런 로엔 왕국의 태도때문에 늘 회의는 결론없이 끝나기 일쑤였다.

리오넬은 그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싹싹한 성격과 호의적인 태도로

제국의 귀족들의 호감을 샀다. 오래 된 귀족들은 그와 황제의 과거를 알고있으니 눈치껏

태도를 조심했지만 신생귀족이나 최근 가주 자리를 물려받은 어린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다.

개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게 맞으니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평화 협정을 하자는

귀족들도 있었다.

"머저리같은것만 모여서는."

레온하르트는 늦은 밤까지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보며 이마를 짚었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최근들어 변한 페이라의 태도 때문에 신경쓰여서 집중을 할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모든것을 안 그녀가 화를 낼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마음이야 어찌됐던, 그는 그녀를 기만한게 사실이었으니.

그렇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를 지켰다.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표현이 풍부해진 그녀였지만 레온하르트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녀가 예전부터 무엇인가 일을 도모할때는 항상 아무말 없이 처리했기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건 아닐까, 그녀가 그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했던가.

그녀를 얻기 위해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칠년이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권력을 얻으려 짓밟은 왕국들은 그들끼리 뭉쳐 새로운 세력이 되었다.

사랑을 얻으려 처리했던 남자는 그 세력의 중심이 되었다.

가까스로 옆에 둔 사랑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는다.

행복의 달콤함에 빠진 칠년간이 신기루처럼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었다.

한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일까, 계속되는 압박감에 서류를 대충 던져놓고

그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되는 고민에 상념에 빠져있는데 미간 사이로 살짝 손가락이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자 어느새 소리없이 다가온 페이라가 있었다.

"페이라..?"

"왜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요."

상념이 길어져 그도 모르는 사이 인상을 쓰고 있었나 보다.

그런 그를 보며 페이라는 웃는 얼굴로 그의 미간을 살살 폈다.

"조금, 일이 많아서."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민이야 어찌됐든, 그래도 눈앞에 그녀가 있음에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이라는 잡힌 손을 잠시 응시하더니 그의 무릎위에 앉아

목 뒤로 손을 둘렀다.

레온하르트는 그런 그녀를 익숙하게 고쳐 안고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피곤해"

"조금 쉬면서 해요."

지친 그의 머리를 도닥이는 페이라에게선 좋은 향기가 났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취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만다.

페이라의 향기를 더욱 빨아들이며 그는 조금씩 입술을 지분대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페이라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많이 변했네요, 당신도."

처음 몸을 겹칠때 서투르던 당신과는 아주 달라,

페이라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그에 약간 자존심이 상한듯 레온하르트가 불퉁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서 싫어?"

살짝 볼멘듯 불만인 표정이 귀여워서 페이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웃어버렸다.

그녀는 그의 소년같은 면모를 좋아했다.

세간에서는 형의 자리를 찬탈한 그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

제국을 부흥시킨 장본인이긴 하지만 기본 성정이 잔인할거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많았고,

그의 수완을 인정하면서도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지만 페이라의 눈에 비친 레온하르트는 그저 욕망에 솔직한 순수한 남자였다.

비록 그가 행하는 과정들이 비열했을지라도 페이라에 대한 마음만은 올곧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칠년동안 자신이 이렇가까지 마음을 열었을리 없으니.

칠년간, 레온하르트는 정무에 시달리면서도 꼭 시간을 내어 매일같이 페이라를 만나러 왔고

철따라 진귀한 보석들과 드레스를 한아름 사다 안기곤 했다.

공녀로 자라온만큼 값비싼 재화들에 익숙해진 페이라였지만 그녀마저도 눈을 휘둥그레 하게 만들

선물들로 인해 그녀가 국고를 걱정할 정도였다.

이벤나힘의 몰락으로 세가 약해진 틈을 타 그녀를 물어뜯으려던 귀족들도

레온하르트가 그녀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며 귀애하는것을 보곤

앞다투어 그녀의 눈에 들려 노력했다.

그런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페이라가 그를 사랑하게 된것은 그런것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끔 잠들지 못한 밤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이라던가,

온실에서 잠이 든 그녀에게 햇빛이 닿지 않게 손으로 가려주는 자상함,

무도회에서 쉬지않고 춤을 추었을때 테라스로 불러내

발을 주물러 주는 행동등, 그의 다정함을 좋아했다.

그가 그녀를 생각한다는 소소한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칠년동안 항상 올곧게 그녀에게 성실했던 남자.

그런 그에게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을수 있었을까.

"레온하르트, 전 지금이 좋아요."

페이라는 그를 더 꼭 껴안으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그와 함께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날 이후, 리오넬은 페이라에게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지만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페이라는 항상 황제에게 수동적이라는 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레온하르트에게 적극적이었으며, 모든 일을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듯 싶었다.

먼 발치에서 볼때마다 그녀는 레온하르트의 옆에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레온하르트는 그런 그녀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너무나 평온한 일상의 연속.

리오넬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납을 매단듯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얼마동안 그렇게 관찰했을까.

홀로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는 페이라를 보자 그는 무엇에 홀린듯 기척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물론 그녀의 발걸음이 당도한곳은 레온하르트의 집무실이었다.

닫힌 문 안쪽으로 마검사가 된 후 기민해진 그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살짝 투정을 부리는것 같은 황제를 달래는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지.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져 두 눈을 꼭 감아봤지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잔상이 그를 괴롭혔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레온하르트에게 향하던 그 모습.

예전의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가와 주었을텐데,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토기가 치밀어올라 리오넬은 입을 막고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것이었는데.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잔잔한 미소도, 상냥한 손길도, 애정을 갈구하는 눈빛도 모두다 자신을 향해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잡고 있던게 너의 손이었다면.

아니, 애초에 내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후회는 형태가 되어 그의 얼굴을 적시었지만 이제 그것을 들어줄 이도, 감싸안아 줄 이도 없었다.

그것이 더더욱 가슴에 사무쳐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집무실 안에선 그녀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서서히 신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더이상 참을수 없어진 그는 자리를 피해 복도를 내달리며 언젠가 들었던 그녀의 말을 회상했다.

'리오넬, 네 마음이 딱 거기까지였던거야. 더도말고 덜도 말고, 그저 그런 정도의 마음.

이제와서 필요없는걸 내밀면서 구걸하지마.'

아아 페이라, 그럼에도 난 널 놓지 못해.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리오넬은 페이라가 진정으로 그를 잊었으며 지극히 행복해 하는것을 알았다.

페이라를 위한다면 그녀를 위해 물러남이 옳았으나, 몇번을 꺾어도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후회와 미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눈길 한번이라도 더 받아보려 발악할뿐, 모든 감각이 그녀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리오넬의 마음과는 상관 없이 페이라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리오넬을 더 참담하게 만들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게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넣을수 없을때 사람은 체념을 배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번 쥐었던 것이라면, 그 기억을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리오넬의 경우,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서도 놓지 못했던 그 기억은 집착이 되었다.

이제는 페이라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돌릴수 없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할수 없어서인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채 리오넬은 그저 페이라를 되찾는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때론, 이러한 사람의 집착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기 마련이다.

"-하여, 아시오네 왕녀를 황비로 보내는것은 어떨까요.

제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만."

회의가 재개된 후, 양쪽의 기싸움으로 인해 한동안 지지부진 했던것이 리오넬이 발언권을 얻은 후로 많은것이 달라졌다. 아무래도 사절단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것과, 왕국의 공작이자 마검사인 리오넬이 직접 발언하는것은 많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었다.

리오넬은 자신의 입지를 잘 활용할줄 알았고, 황제도 쉽게 대할수 없는 상대이다보니 강력하게 밀어내거나 제국측에 유리하도록 방향을 바꿀수가 없었다.

그렇게 긴장의 끈이 팽팽한 가운데, 리오넬이 낸 해결안은 다음과 같았다.

왕국의 독립과 함께 왕녀를 황비로 보내 두 나라간의 결속을 다지자는.

사실 제국 측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다.

아시오네 왕녀는 로엔 왕국의 왕이 금지옥엽 귀애한다는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

따라서 독립 허가를 내주고, 그녀와 혼인을 치르면 왕국 측에서도 아무리 마검사가 있다지만 그녀의 안전을 생각해여 허튼 수작은 부리지 못할 터였다.

따라서 제국의 많은 귀족들은 대부분 납득하였으나, 현재 모두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부터는 페이라가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저번의 사달 이후 페이라는 레온하르트의 일을 돕겠다며 국정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고, 언제나 페이라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레온하르트는 기꺼워하며 수락하였다.

비록 이벤나힘이 황가로 흡수되었다고는 하나 명목상의 이름은 남아있던지라 페이라는 공작의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사실 그녀가 이 제국의 실세라는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언제나 황후라면 쩔쩔매는 황제였으니.

"폐하."

감정없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 서늘함에 귀족들은 그저 침만 삼키고 있었고 왕국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고정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후는 조용히 황제의 의중을 물었다.

페이라는 사실 레온하르트를 누군가와 공유해야한다는게 죽도록 싫었다.

하지만 칠년동안 그녀의 옆을 지키면서 헌신했던 그를 생각했을때, 그가 비록 자신을 얻기 위해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고는 하나 제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 황비를 받아들이겠다면 그녀도 그의 뜻에 따를 생각이었다.

물론 레온하르트는, 단번에 거절했다.

"나는 황후 이외의 사람은 필요없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웃으며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리온 아스트라트 경의 안은 기각이네요."

그녀의 만족스런 발언에 심기가 상한 리오넬은 조금 더 그의 주장을 밀어붙여보기로 했다.

"-허나, 재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제국의 강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오나 마검사인 제가 있는 이상 이제 왕국도 약소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스트라트 경."

페이라가 고저없는 목소리로 리오넬의 말을 끊었다.

"황제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리오넬을 마주 보며 나직히 말했다.

"황제께서 원하지 않는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시오네 왕녀를 황비로 보내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한박자 멈춘후 페이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확실한 경고였다.

"그녀가 제국에 당도할때까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부득불 황제의 옆에 누군가를 붙여놓겠다면, 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직접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페이라는 언제나 사랑에는 맹목적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잔인해질수 있는 이였다.

"무슨...!"

왕국의 사절단이 분개해서 일어나려는 찰나 페이라의 말이 이어졌다.

"그러고보니, 지금 3공작의 여식들이 혼기가 다 찼던거같은데."

눈꼬리를 접어올리며 사르르 웃는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시렸다.

"차라리 아스트라트 경이 그중 하나와 혼인을 하여 제국에 있는것은 어떨까요?"

바야흐로, 페이라의 반격이었다.

페이라의 발언은 로엔 왕국이 쌍수를 들며 환영할 제안이었다.

자신들의 왕녀를 보내면 결속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왕녀에게 해가 갈까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다.

하지만 리오넬이 공작가의 자식과 결혼해 제국에 머무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국에 적개심을 품고 있는 리오넬이기에 왕국의 기밀을 누설할 일도 없고, 오히려 제국의 동향이나 여러 정보를 얻어오기 쉬워진다.

제국에 불리할수도 있는 제안이지만 페이라는 개념치 않았다.

어차피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것은 자신이었으니까.

사실 리오넬도 왕국따위 어찌되든 레온하르트에게서 자신을 되찾을 생각밖에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런 그의 헛된 생각을 산산히 부셔줄 심산이었다.

-나의 마음은 더이상 네게 가지 않아.

일순 배신감에 얼룩진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으나 그녀는 마주보며 눈으로 웃어줄 뿐이었다.

그는 이내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입을 열었다.

"지고하신 황후폐하."

약간은 오만한듯,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페이라가 어디 말해보라는듯 리오넬에게 고개를 까딱였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말은, 페이라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다.

"저는 여자를 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불가합니다."

뭐라고?

그의 발언에 페이라는 저도 모르게 의자의 팔걸이를 세게 쥐었다.

비록 강제했다고는 하나 그녀와 몸을 여러번 섞었던 그였다.

그렇기에 그의 저 말이 거짓이라는걸 알면서도 예전 비밀스런 관계였다고 말할수도 없기에 함부로 입을 열수 없었다.

"마검사로 각성한후, 마력이 몸에 넘쳐 일반 여성들은 제 기를 견딜수 없습니다.

공작가를 포함, 마력을 소지한 자는 극히 드물고, 제 기를 받아낼만큼 큰 마력의 소유자도 없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황후 폐한의 제안도 이루어질수가 없겠군요."

리오넬은 빙긋 웃으며 페이라를 도발했다.

"황후 폐하 정도가 아니면, 제 기를 감당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 무슨 불경한!!!"

"공작!"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리오넬의 말은 확실한 의사를 담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건 페이라라는것을.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의중을 눈치챘고 그에 따라 주변에서 황족 모독이라며 반발하며 일어났다.

이미 황제는 그의 발언을 듣자마자 분노하여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지 오래였다.

왕국 사절단도 당황하여 리오넬과 황제 부부만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사이 지베르헨만 그래서였군... 하며 조용히 물을 들이킬 뿐이었다.

"리온 아스트라트 경."

모두가 소란스런 가운데 페이라는 조용히 눈앞의 찻잔을 들어올려 한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미숙하군요. 그것도 아주."

"무슨...!"

"경이 마검사로 각성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걸로 아는데, 아직도 마력을 조절하지 못하나요?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방대한 마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릴때부터 조금씩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마력이 제대로 터진것은 7년전이었어요.

하지만 2년 후에 모든 힘을 갈무리했어요.

이말이 무슨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미숙함을 알린것밖에 되지 않아요."

"-!"

"그대의 마력이 제것보다 훨씬 더 방대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경의 주변에 흐르는것으로 보아 솔직히 검술 실력의 차이가 있을뿐, 저와 비등비등하다고 여겨지네요."

페이라는 반쯤 거짓을 섞어 말했다.

어릴때부터 접해 훈련해온 페이라와, 갑자기 각성한 리오넬은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가 조절하지 못하는것은 이상한것이 아니며, 사실 그 원인에는 그녀의 두배 이상 가는 마력차이에 있었다.

다행히 페이라는 자신의 힘을 숨길줄 알았고, 그녀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 리오넬은 그녀의 마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를 터였다.

"따라서 경의 발언은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리오넬은 충격을 받은듯 믿을수 없단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국 사절단 일동, 그리고 아스트라트 경.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면, 마력을 담을수 있는 마정석을 혼인 선물로 주도록 하지요.

그러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 부디,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길."

말을 마친 페이라는 마지막까지 우아한 동작으로 일어나 레온하르트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왕국으로부터 수락의 편지를 받았다.

그 후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페이라의 지휘 아래 리오넬과 3공작의 적녀인 이베트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근 한달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그날 밤, 페이라는 황궁 정원을 거닐며 회상에 잠겼다.

일말의 미련마저 털어버렸다고는 하나 자신에게 의미 깊었던 자의 결혼.

어린날의 자신은 상상조차 못한 현실이었다.

철이 든 무렵부터 페이라는 줄곧 리오넬만이 그녀의 짝이라 생각했으며,

장성한후 반드시 그와 결혼하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세이라가 나타날때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던 믿음이었기에.

"한치 앞도 모르는것이 인생이라-"

식상한 말이지만 어느것도 저 말 만큼 인생을 본질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페이라는 자조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되었다.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베트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많은 영식들이 그녀를 보고 얼굴을 붉혔으며, 다른 귀족 영애의 부러움과 찬사 또한 잇따랐다.

물론 그녀 못지 않게 리오넬의 외관도 뛰어났기에 결혼식에 참석한 귀족들은 입을 모아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은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단계인 신랑과 신부의 서약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여, 이베트 베르가못양은 리온 아스트라트공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리오넬을 남몰래 흠모했기에 어느 누구보다 이 결혼식을 기다렸던 이베트는 얼른 네, 하며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 전에 리오넬이 그녀의 손을 잡곤 말을 끊었다.

"이베트양."

낮은 저음이 홀을 울렸다.

그것은 어쩐지 음울한 기색을 띄고 있어 페이라는 선득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그럴수 없을겁니다."

마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하는 표정과는 반대로 리오넬의 어투는 서늘했다.

"왜냐면 오늘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거거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이 이상한 수식어로 뒤덮였으며, 알수 없는 마법진이 식장 이곳 저곳에 영창됐다.

그러곤 마법진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튀어나와 하객을 마구잡이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행복해야할 신부는 부케를 떨어트린채 얼어붙었고 식장은 다친 이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페이라는 마법으로 이 사태를 멈추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력이 구현되지 않았고

속수무책으로 마물들에게 사람들이 짓이겨지는것을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레온하르트만은 지켜야 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레온하르트였으나 마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계의 생물과 대적이 될 리가 없고, 마물과 대치해본 경험또한 없기 때문이다.

급히 주변에 보호마법진을 그리는 페이라의 앞에 검은 구두코가 보였다.

올려다본 그곳엔 이지러진 미소를 짓고 있는 리오넬이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냐-.'

그리 생각한 페이라는 재빨리 마법진을 구동시켜 레온하르트의 방어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리오넬이 제일 먼저 그를 노릴거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리오넬은 줄곧 페이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의 신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는 리오넬을 보며 느꼈다.

-자신이 그를 너무 과소평가 했노라고.

리오넬은 그녀가 예상했던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제때 터트릴줄 아는 이였다.

'생각해보면 어릴때부터 그랬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최대한 숙이고 낮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낸다.

어째서 잊고 있었을까.

"나의 사랑."

리오넬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은후 머리카락을 한줌 쥐어 경건하게 입을 맞췄다.

그 손길에 소름이 끼쳐 그의 어깨를 밀어냈으나 다부진 몸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오넬은 진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양손을 잡아왔다.

이윽고 손에 닿는 입술의 감촉.

"나의..... 페이라."

아아, 어째서 너는 이다지도 내게 집착하나.

페이라는 진실로, 그와의 인연을 후회했다.

억지로 가지지 않았더라면 달랐을까.

혹은 연정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달랐을까.

아니, 아예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회한에 가득찬 페이라와는 달리 리오넬은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에 다정하게 여러번 입맞추었다.

마치 어린날, 순수했던 그때처럼.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이지만 이다지도 다르게 느껴질수 있던가.

끔찍하게만 느껴지는 리오넬에 페이라는 입술 안을 씹으며 현 상황을 판단했다.

아비규환의 장. 보호해야할 황제. 구현되지 않는 공격마법.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페이라는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나를.... 이곳을... 어떻게 할 셈이야?"

그녀의 불안 섞인 목소리에 만족감을 느꼈는지 리오넬은 배부른 포식자처럼 웃었다.

"오늘부터 당신이 제 신부입니다, 아가씨.

이곳은.... 마음같아선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가볍게 말하는 그의 발언에 페이라는 실로 눈앞의 이가 두려워졌다.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하지만 그러면 아가씨의 정신이 망가질테니 거래를 하죠.

아주 아주, 합당한 거래를."

"무슨..."

페이라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으나 리오넬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아무말 않고 저를 따라와주면 황제의 목숨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모든 마수들도 물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정도면 제가 손해보는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 아가씨의 소중한것들을 어느정도 존중하니까요."

곱게 휜 눈 안에 어린건 광기였을까, 발악이었을까.

어느쪽이든 결국 서로를 갉아먹게 될 뿐일텐데.

해맑은 얼굴의 리오넬을 보면서 페이라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네가 그 말을 입에 담을수 있어.

이벤나힘 공작은 리오넬의 목숨줄을 들먹이며 페이라를 빅터의 침실에 밀어넣었다.

리오넬은 스스로의 목숨줄을 걸고 세이라의 안전을 지켰다.

두번 다 사랑이란 감정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죽였다.

몸을 버리고, 질투를 수백번 참으며 억눌렀는데.

그녀가 누구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협박을 하나.

"리오넬."

잡힌 손을 뿌리치곤 거리를 벌린후 페이라는 서슬퍼런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건 알고 있어.

이유가 뭐였든, 빅터에게 간건 내 선택이었으니 아무리 괴로웠어도 참아 넘겼어야 해.

너에게.....

너에게, 몸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해.

그건 나의 실책이었고, 아무리 미숙하다고는 하나 나의 잘못이 맞아."

한탄에 찬 말을 이으며 페이라는 모든 신경을 세워 체내의 마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단 한발, 한발이면 돼-

"하지만 사랑을 갖고 협박해선 안되는거야.

난 너를 권력으로 찍어눌렀을지언정, 너의 감정을 두고 이런 짓따윈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널, 더더욱 용서할수가 없어. "

증오 어린 그녀의 시선에도 요요히 미소짓는 리오넬이 어찌 그리 징그러워 보이는지.

모든걸 끝내기 위해 어떻게든 마법을 시전시키려 페이라가 술식을 읊었다.

계산이 맞았던 것인지 이윽고 마력은 그녀의 손에서 조그만 번개로 탈바꿈하였고,

리오넬을 향해 그것을 던지려는 찰나-

페이라의 입에서 피가 튀었다.

"페이라-!!!!!!"

레온하르트의 비명과 동시에 페이라는 주저 앉아 계속 피를 쏟아내었다.

-뭐가 잘못된거지?

회로가 멈춘듯, 새하얘진 머릿속과 동시에 어떻게든 역류하는 피를 막아보려 손으로 입을 가렸으나 피의 양이 너무 많았다.

온통 붉은색의 바다인 가운데, 경쾌한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억지로 가동시키지 말지 그랬어요."

안타깝다는 듯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리오넬은 페이라를 안아들었다.

거기까지가, 페이라의 기억이었다.

레온하르트 12년, 황후가 납치되었다.

황후를 납치한 자는 본래 레온하르트국의 기사로 마검사로 각성해 로엔 왕국의 독립을 도운 이였다.

베르가못 공작의 적녀와의 결혼식 당일 마수를 소환하여 레온하르트국의 귀족 절반을 몰살시켰으며,

황제의 군대가 겨우 마수를 물리쳤을때는 이미 황후와 함께 사라진 후였다.

그녀를 되찾았을때 둘만 있을수 있도록 마력없이는 살아갈수 없는 곳으로 터를 잡았었다.

장소의 덕분이었을까, 마력이 충돌해 내상을 입었던 페이라의 몸은 금세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눈을 뜨지 못했다.

"뭐가.... 뭐가 잘못된거지?"

그는 페이라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깨어나기를.

다시한번 그 눈동자로 자신을 봐주기를.

"제발, 제발 눈을 떠요. 나의 아가씨"

힘들게 빼앗아 온 그녀였기에 더 간절했다.

한번 쥐었던 것이기에 더더욱 애달팠다.

한때 자신의 삶에서 큰 부분이었고, 이제는 정착지가 되어버렸기에 잃을수 없었다.

그러나 페이라는 마치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등질것 같았을까.

리오넬은 덜컥 겁이 나 그녀를 부여잡았다.

의식없는 페이라 앞에서, 그는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었다.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거야.

잃고싶지 않아. 잃지 않을거야.

만약 당신이 죽는다고 해도, 지옥이든 천국이든 내가 가서 끄집어 올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제발."

아무도 듣는이 없는 절규는 방을 울리며 흩어질 뿐이었다.

불면 날아갈까, 땅으로 꺼질까,

리오넬은 매일매일 옆에서 그녀를 간호하며 보살폈다.

어떤 날은 책을 읽어주며,

또 다른 날은 둘의 추억을 읊어주며,

다른 어떤 날은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리오넬의 간절함이 닿았던 것이었을까.

페이라는 한달후 눈을 떴다.

"...리오넬?"

"아아, 신이시여."

감겼던 눈꺼풀이 들어올려졌을때 그 희열을 누가 설명할수 있으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도 믿지 않았던 신을 찾으며 리오넬은 목놓아 울었다.

그리고 한번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어째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아버님은? 공작성은?"

-페이라는 기억은 19살로 돌아가있었다.

리오넬은 항상 박복했으나 살면서 여러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였다.

"잘 들으세요 페이라 아가씨.

이벤나힘 공작님이 반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아가씨는 그때 공작님의 명령으로 인해 마법을 시전하다 마력이 역류하셨고, 그대로 지금까지 줄곧 혼수상태였어요.

반역 진압 당시 공작령에 군사가 쳐들어오기전에 기절한 아가씨만 가까스로 모셔올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가씨가 어떻게 되버리는줄 알고.....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영영 닿지 못할까봐...."

리오넬은 감정에 북받친듯 말을 흐리며 울었다.

붙잡은 손에 떨어지는 눈물이 참 따뜻하다고 느끼며 페이라는 리오넬을 다독였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리오넬.

그리고 그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

리오넬은 페이라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페이라는 그런 리오넬에게 몇번이고 고맙다고 하며, 고개숙인 그의 정수리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그래서 페이라는 볼수 없었다.

-리오넬이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던것을.

19살의 기억에 갇힌 페이라는 너무나 올곧고 순수해서, 리오넬은 매번 눈물이 날것 같았다.

이런 사랑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자신의 감정에 눈을 감고 있었나.

다시한번 그시절의 그녀와 만났다.

두번 다시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으리라.

"아가씨,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들판에서 한아름 꽃을 꺾어와 그녀에게 건네며 고백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것은, 모든것을 환히 비출만큼 행복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페이라의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후 페이라와 리오넬은 아침부터 잠에들때까지 모든 일을 함께했다.

그동안의 간극을 메우려는 듯이.

식사를 준비할때도 함께, 사냥을 나갈때도 함께, 청소를 할때도 함께.

그의 모든 시간에 그녀가 있었으며, 그녀의 모든 시간에 그가 있었다.

리오넬은 하루하루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입맞춤을 할때마다 화르륵 불타는것처럼 빨개지는 그녀가 귀여웠고

조막만한 손으로 자신을 쓰다듬을때면 한없이 세상을 다 가진것 같았다.

껴안고 잠이 들때면 세상에 둘만 있는것마냥 사랑이 충만했다.

리오넬의 세계는 그렇게 점차 그녀로 물들어갔다.

서로만을 바라보며 지낸지 두달쯤 되었을까,

어느날 페이라가 음식을 먹는 도중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 도통 그 후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토해낼 뿐이었다.

그저 먹을수 있는것이라고는 바구니에 한가득 들은 딸기로, 다른 음식은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껍다며 거부했다.

"페이라, 혹시-"

19살의 페이라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27의 리오넬은 알았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이다.

리오넬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을 만끽했다.

너무나 충만하여, 오히려 불안할 지경이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수는 없는법이기에.

이 순간이 혹시 깨어질까 전전긍긍했으나 불안해 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괜한 기우탓이라 여겼다.

다만 이따금, 아주 이따금 왜인지 모르게 등 뒤가 선득한 느낌이 들었으나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는 페이라의 부른 배에 귀를 대며 아이의 출산을 기다렸다.

그렇게 그들은 둘만의 세상에서 지극히 행복하였다.

그것이 깨진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

납치로부터 열달 후,

난산을 겪으며 낳은 아이의 눈동자는 레온하르트의 것과 같이 새빨간 진홍색이었다.

태어난 아이를 보며, 리오넬은 한번도 느끼지 못한 새빨간 분노를 느꼈다.

자신과 페이라의 아이였어야 했다.

그와 그녀의 모습을 반반 닮은 아이였어야 할 터였다.

앵- 울면 고물고물한 손을 잡아주며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하고 속삭였어야 할 터였다.

그랬었는데...

행복의 정점에서 추락하는것이, 어찌 이리도 쉬우며 비참한가.

리오넬이 받아낸 아이는 어떠한 것도 그를 닮지 않았다.

눈, 코, 귀, 입, 이목구비는 페이라를 쏙 빼닮았으나 어느 한구석 리오넬과 같은것은 없었다.

오히려 증오스러운 이의 눈동자 색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

리오넬은 힘이 빠져 아이를 안은 채로 주저앉았다.

가까스로 얻은 두번째 기회에서, 행복이 어그러졌다.

모든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너질수가 있나.

리오넬이 참담함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찰나 갓 태어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미인 페이라는 혼절하여 아이를 달래줄수 없었고, 아비였어야 할 리오넬은 넋이 나간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으엥, 으엥- 하는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 소리에 응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망연자실해 있던 리오넬을 정신차리게 만든것은 자신의 손을 없는 힘껏 꽉 잡아오는 작은 손가락이었다.

"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붙잡고 리오넬도 같이 울었다.

자신의 행복을 조각내트린 아이가 미웠다.

페이라의 아이인 주제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어서 미웠고

증오해 마지 않던 이의 아이여서 더 미웠다.

"왜 태어난거니. 왜....."

-왜 뱃속에서 죽어버리지 않았던거니.

그의 원망은 말없는 증오로 탈바꿈하였고, 그는 그것을 쏟아낼 대상을 손에 쥐고 있었다.

죄 없는 이는 또다시 스러지리라,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번득이는 그의 시선은 미움으로 얼룩진 살의로 가득하였다.

"너만 없어지면 돼.

아이는, 다시 페이라와 나의 아이로 만들면 돼."

연약한 목을 부러트리기만 해도, 자그만 아이는 곧 숨을 잃을 터였다.

한손에 다 들어오는 목을 틀어쥐며 리오넬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이 웃는 낯이었는지, 아니면 일그러진 낯이었는지.

행복을 위해서라면 금수라도 되어주겠다며 눈물을 떨구며 목을 그러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 리오넬을 멈춘것은 조그만 부름이었다.

"아가..."

혼절로 인해 아득한 정신인 채로 페이라가 아이를 찾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한 것이어서, 리오넬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자신이 가까스로 살아난것을 알았을까-

아이는 전보다 더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아가..."

들리지 않는 손을 억지로 들며 아이를 찾는 그녀의 앞에서 아이를 죽일순 없었다.

눈도 뜨지 못하는 그녀의 품에 안겨주자 페이라는 그제야 평온을 찾은듯 고른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마저도 아름답지만 비참하여, 리오넬은 말없이 울음을 삼켰다.

아이를 바로 죽이지 못했다고는 해도, 리오넬은 그 아이가 그들의 공간에 있는것을 견딜수 없었다.

그리하여 안정을 찾은 페이라가 잠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먼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리한후 페이라에겐 너무 약해서 죽어버렸다고 할 셈이었다.

리오넬이 숲의 호수에 당도했을때, 아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대로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려 물가로 다가간 순간, 어디선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왠만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숲인데다 마력이 없으면 들어올수 없는 곳이었다.

침입자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하필 이 순간에.

당황한 리오넬은 그대로 아이를 잡은 손을 놓쳤고, 아이는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어서 페이라의 곁에 돌아가지 않으면-'

급히 사라지는 리오넬이 한번 뒤를 돌아봤을땐 수면은 아무일도 없었단듯이 잔잔할뿐, 일렁임 하나 없었다.

레온하르트력 12년 겨울, 황제의 조사로 여러 지역을 수색하던 마법사가 물에 빠진 아기를 구한다.

아기는 황가만이 갖고있는 붉은 눈동자를 지닌 사내아이로, 황제에게 전달된후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군대는 그 후 아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하여 수색을 계속하였다.

다른 침입자가 있을까 우려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을때 그를 반긴건 아무것도 변한것 없는 풍경이었다.

잠든 페이라의 이마를 한번 쓸으며 리오넬은 안도했다.

"절대, 두번다시 잃을순 없어.

우리의.... 행복도. "

간절하고 또 간절했기 때문이었을까.

그의 바람은 그만큼 더 비참한 색을 띄고 있었다.

페이라가 눈을 뜬 순간, 제일 먼저 느낀것은 홀쭉하게 비어버린 배였다.

열달동안 함께 했던 존재인지라 어딘지 허전하면서도 얼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분명, 잠들기 전에 내 품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가, 어디에 있니?"

힘든 몸을 일으켜 아이를 찾았으나 요람에서 곤히 자고 있어야 할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흙투성이에 지친 표정을 한 리오넬이 그녀의 옆에 걸터앉았다.

"리오넬, 아이는 어디에 있어?"

그는 그녀의 물음을 듣자마자 한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점점이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그는 울먹이며 아이가 너무 약해서 죽어버렸노라,

그래서 아이를 묻고 올 수밖에 없었노라 이야기 했다.

페이라는 멍한 정신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막았다.

아아, 그가 무슨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어.

그저 소리의 이어짐일뿐, '말'이 되어 전달되지 않아-

비참한 현실에서 결국 그녀가 택한것은 도피였고 그렇게 그녀는 정신을 놓았다.

그 후 다시 깨어난 페이라는 어딘가 망가져 있었다.

멍하니 있을때가 많았고, 웃음을 짓는 일이 적어졌다.

평소에는 얌전했기에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변한것이 있다면 가끔 괴성을 지르며 숲을 뛰어다니는 발작같은 버릇이 생겼다는것.

그런 그녀를 처음엔 잡으러 다니던 리오넬도 반드시 집으로는 돌아오는 것을 깨달은 후엔 내버려두었다.

자신이 망가트린 그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을까, 아니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픈 것이었을까.

어느 쪽이던 발작 이외에는 모든것이 똑같은 그녀였으니.

이따금 아이를 찾긴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리오넬을 항상 상냥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다.

오로지 그만을 바라봐 주었다.

한번 망가져버린 둘만의 세상은 퍽이나 서글픈 구석이 있었으나 그래도 리오넬은 행복했다.

완전하진 않아도, 여전히 일부는 남아 있으니까.

언젠가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다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페이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리오넬은 바랬다.

비참한만큼 강한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한해, 두해가 지나고 리오넬의 소원대로 페이라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다.

발작은 사그러들지 않았지만 빈도수가 낮아졌으며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 늘어나고 전보다 더 웃게 되었다.

그럴수록 리오넬의 행복도 점차 차올랐다.

언젠간 예전처럼 돌아갈수 있을거야-

방글방글 웃는 페이라에게 마주 웃어주며 리오넬은 따뜻한 손을 잡았다.

또 한해가 지나고, 그들이 함께한지 4년째 되는날 페이라는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번엔 튼튼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네, 하며 말하는 페이라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는 길고 긴 입맞춤을 남겨주었다.

리오넬은 실로 오랜만에 푹 잘수 있었다.

더듬거리며 옆에 손을 뻗었으나 만져지는것은 빈 공간 뿐.

집이 적막한걸 보니 또다시 발작이 일어난듯 싶었다.

보통때 같으면 그대로 두었겠지만 페이라는 더이상 홀몸이 아닌 상태였다.

급히 옷을 챙겨입고 밖을 나가 그녀를 찾았다.

이윽고 머지 않은 곳에서 가만히 서있는 그녀를 발견하였다.

평소 발작할때 괴성을 지르며 아가, 아가, 하고 부르던 그녀와 달리 오늘은 매우 조용했다.

혹시 산책을 하고 있던 것이었나, 괜한 기우였다고 생각하며 리오넬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것은 그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리오넬."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녀의 음성이 한 톤 올라가 있었다.

역시 그녀도 아이를 가진게 기뻤던걸까.

웃으며 리오넬은 페이라의 부름에 다정히 응, 하며 답했다.

리오넬을 등진채로 있던 페이라는 뒤 돌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행복해?"

그녀의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너무 행복해.

너털웃음을 지으며 대답한 그에게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다.

"얼마만큼?"

리오넬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었다.

그는 지극히 행복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머릿속이 녹아버릴 정도로,

네가 내 옆에 있는것만으로도 실없이 웃음이 나올정도로.

아니,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수 없을정도로 행복해. "

왜냐면 이번엔- '진짜'니까.

진짜 너와 나의 아이가 있으니까.

"나의 모든것을 바쳐서 너를 사랑해. "

"그렇구나"

계속 등을 보인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날처럼 벼려진 기색을 띄고 있었다.

소리에도 형태가 있다면 수백개의 칼날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성공했구나."

천천히 뒤돈 페이라의 표정에는 리오넬이 처음 본 감정들이 얼룩져있었다.

끔찍함, 혐오감, 증오.

-어째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설마, 페이라... 기억이."

당황하여 페이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딯었으나, 이윽고 무언가에 부딫히고 말았다.

"기억따윈 한번도 잃지 않았어."

비소를 지으며 페이라는 입을 열었다.

페이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순간 생각했다.

이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큰 우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얌전히 리오넬이 데려가는대로 몸을 맡겼다.

원래는 몸을 회복하는 즉시 어떻게든 끝을 내려 했지만 그러기엔 그의 힘이 너무 강했다.

조금씩 힘을 키우며 기회를 보자, 생각하며 기억 잃은 척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그저, 단숨에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아무리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는 하나, 첫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관계가 어그러진데에는 그녀의 잘못도 있었으니.

최대한 고통없이 보내줄 생각이었다.

지긋지긋한 연기를 하면서 그의 옆에서 어떻게 해야 그를 능가할수 있을까만 고심하였다.

그런데 생겨있었던것이다.

-레온하르트와 그녀의 아이가.

리오넬은 철썩같이 그들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으나 페이라는 알고 있었다.

왜냐면 입덧을 하기 훨씬 전부터, 결혼식 즈음에 그녀의 달거리는 이미 끊겨있었으니까.

리오넬보다도 훨씬 약한 자신이건만, 아이가 태어나면 더 약해질게 자명했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지킬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깊이 잠든 밤, 몰래 집을 나와 흔적을 남겼다.

황제의 수색대가 자신의 자취 한자락이라도 잡을수 있도록.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를 데려갈수 있도록.

리오넬은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닌걸 안다면 바로 죽여버리려 할것이다.

어떻게든 그걸 막더라도 사고인척 처리하거나 멀리 떨어진곳에서 죽일텐데 그때를 위해 페이라는 숲 이곳저곳에 흔적을 남겼다.

행복에 눈이 먼 그는 예전보다 둔해졌고 그녀가 남기는 흔적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취해있을뿐.

-여전히 허상에 놀아나는지도 모르는구나.

멍청한건지 어리숙한건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구석이 있었으나 페이라는 동정을 버렸다.

왜냐면 한자락이라도 마음을 다시 허락하는 순간, 매는 자신의 목줄기를 물어뜯을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예상한 모든것은 맞아떨어졌다.

사전에 여러번 생각한 것일지언데, 그가 정말 페이라의 아이를 죽이려 했을때는 혐오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면, 곱게 죽이진 않으리라.

그리고 죽지 않았더라도 이 일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리라.

그리 다짐하며 멀어지는 정신속에서 페이라는 이를 갈았다.

페이라는 일의 방향을 바꿨다.

죽이는것은 싫었다.

편해지게 두고 싶지 않았다.

계속해서 고통받길 원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길 바래.

그래서 계획한 것이다.

행복의 정점에 있을때, 모든것을 부숴버리자고.

영원히 가질수 없는것의 비참함에 죽을때까지 몸부림쳐보라고.

결심한 후에는, 연기의 연속이었다.

미친 척을 하고. 숲을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는 알지 못했을거다.

그녀가 그를 가둘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는것을.

페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땅에 원 모양으로 술식을 심었다.

시전은 페이라가 하겠지만 구동 방식은 리오넬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술식이었는데,

오랜 연구 끝에 가까스로 알아낸 것이었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리오넬은, 페이라마저도 능가하는 마검사였기에 평생 제한된 범위 이상으론 나오지 못할것이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실재하는 감옥이 되겠지.

페이라는 아이가 보고싶을때마다 리오넬에게 웃어주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렴.

행복의 절정에서 너를 진창에 쳐박아줄테니.

그녀가 그와 함께한지 4년이 되갈 즈음, 모든 술식이 심어졌다.

드디어 고대하던 복수의 장이 열린 것이다.

페이라는 그에게 물었다.

-행복해?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그럼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게 무슨...!"

리오넬은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내리쳤으나 더욱 더 견고해질뿐, 페이라에게 다가갈수 없었다.

"평생토록 후회하고 또 후회하렴.

그리고 맛보렴.

빼앗긴 행복에 대한 절망감을.

손에 있었던만큼 더 간절하고 그리워지겠지."

후련한 목소리로 페이라는 다시 뒤를 돌며 작별 이사를 남겼다.

"....안녕히, 리오넬."

바야흐로, 길고긴 인연의 종말이었다.

그녀의 뒤로 리오넬이 악을 쓰며 그녀를 불렀지만 경쾌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숲길을 걸으며 페이라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꾸며지지 않은 있는 날것 그대로.

함께한 13년, 새로이 같이한 4년.

총 17년의 세월은 시간이 시간인만큼 가슴속에 박혀 사라지지 않을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내 새로운 행복이 쌓이면 그 기억들은 힘을 잃게 되겠지.

그리고 아무도 닿지 못할 곳에서 그는 그렇게 잊혀지겠지.

그것이 그녀가 4년동안 계획한 복수였고, 성공적으로 막을 닫았다.

소녀는 기억이 없었다.

길을 잃다 들짐승에게 쫓기었는지, 부모가 버린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혼자였는지.

그저 그녀가 눈을 떴을때 제일 먼저 마주한 낡은 오두막과 그곳에 살고있는 청년 하나만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다.

청년은 항상 다정했으나 소녀가 묻는 어떠한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의 정체도, 어째서 그런곳에 홀로 살고 있는지도.

소녀는 알수 없었겠지만,

시간의 흐름이 멈춘것같은 그곳에서 그는 아주 오래도록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일정 범위 밖으로 나갈수 없기에 바깥 세상의 소식따윈 모른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과거의 잔상에 갇혀 살아갈뿐.

아득히 먼 옛날이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여자를 떠올리며 버티는 삶.

그렇게 언제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의 삶은 소녀가 나타나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스승님- 오늘은 벌레를 잡았어요."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생물체가 징그럽지도 않은지 그녀는 만개한 꽃처럼 웃으며 잡힌것을 내밀었다.

이렇게 가끔 장난이 심해 곤혹스러울때도 있었지만 천진난만함으로 무장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금세 표정이 풀리곤 했다.

"잘했구나."

마주 웃으며 그녀를 안아든 그의 얼굴에도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그동안 지나친 수많은 시간들속 잊고있었던 감정.

가슴이 간질거리는 행복.

그는 지극히 만족스럽다 생각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잊혀진 마검사는 아주 오래전, 염원을 담아 술식을 썼다.

그녀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언젠가 그를 찾아오도록.

간절함이 통했던것일까.

셀수 없을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집 앞에 쓰려져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괴상한 표정으로 마검사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말했잖아. 지옥이든 천국이든 끄집어오겠다고."

드디어, 드디어 만났어.

이젠 영원히 함께야.